

MONTHLY MAGAZINE
VOL. 398.2011.08



06 Leadership+
역경을 딛고 주도적인
삶을

14 Global AF
정밀폭격의 기원,
템버스터즈의 체스타이즈 작전

38 생각하는 그림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는 이유

42 Hollywood English
127시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必求人命 필구인명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 06 Leadership+ 역경을 딛고 주도적인 삶을
- 08 삼각지 논객 노블레스 오블리주
- 10 World-Wide Vision 군견이 되는 길
- 14 Global AF 정밀폭격의 기원, 멤버스터즈의 체스타이즈 작전



- 20 기획특집 必求人命(필구인명) Anytime, Anywhere!
- 26 Photo Sketch 뜨거운 여름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 촬영현장
- 28 Zoom in the AF 상병진급캠프 : "멋진 선임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 32 포토프레임@AF
- 34 AIR FORCE MONTHLY
- 38 생각하는 그림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는 이유

COVER STORY



유독 무겁게 느껴졌던 올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건,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라는 항공구조사들의 불굴의 정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표지촬영 중사 양순호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127시간
- 44 인생은 아름다워 절대반지의 탐욕이 불러온 라그나로크,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 46 Art in Everyday 광화문연가, 작품 속을 거닐다.
- 48 Air-Supply Kiss & Cry, 결과보다는 과정의 치열함을
- 50 Preview 8월의 문화행사

OPINION

04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6월호를 읽고서
- 30 장병기고 병영을 바꾸는 힘, 우리에게도 있다.
- 52 창공 글터 제주도 알뜨르비행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다
- 54 Health Diary 혹서기, 열로부터 건강관리
- 56 책마을 하버드 글쓰기 강의

MONTHLY MAGAZINE

VOL. 398. 2011. 08

발행일자 2011년 7월 29일(통권 제398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월간 「공군」은 **[장문]**이다. 첨단 무기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01
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때론 역사공부도 하게 해주며
사회적 이슈와 문화공연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안을 넓고
크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잡지인
줄 알았는데, 교양지로 봐도 될 만큼 다채로워 제 안목과 지식이
날로 신장되는 것 같습니다. - 전북 익산시, 이지원

02 월간 「공군」은 **[지갑]**이다.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서 항상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6월호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글은 <삼각지논객>의 '호국보훈의
달, 공군의 영웅들'이다. 이제 6·25전쟁이 일어난 지 61주년
이 된다. 이번 호에서 공군에서 활약한 승호리철교의 영웅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서울 관악구, 최호성



6월호를 읽고서

월간 「공군」은 **[열정]**이다. 유사시 즉각적이고, 정밀하게 이뤄 03
져야 하는 공군 전력 구성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
니다. 또한 이 멋진 사진들과 글을 구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여러분의 열정 또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Forever! - 대구 남구, 송명수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4 월간 「공군」은 **[친구]**이다. 친구의 '오래 두고 사귄 벗'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오랜 시간 공군과 함께한 지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친구처럼 앞으로
영원한 공군의 '친구'로 지냈으면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Global AF>의 '두리틀 공습작전'을 다룬 기사와 승호리철교
를 폭파한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가슴에 와 닿았
습니다. '두리틀 공습작전'은 이미 영화화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통해 먼저 만났는데, 글을 읽는 내내 영화속 내용이 머릿
속에 그려졌습니다. - 서울 동작구, 손민철

월간 「공군」은 **[보물]**이다. 볼 때마다 "와" 함성이 나오니까요! 05
이번 호에서는 <Air-Supply>의 '나는 가수다. 여러분 즐거우시
죠? 우리는 죽겠습니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기사가 재밌고
좋았어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의 왼쪽 손이
보기 안 좋아요. 절단된 새끼손가락과 아픈 엄지손가락이지만
고마운 손이거든요. 아버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파이팅해
주세요. 다들 힘내세요. 공군아저씨들! - 충북 충주시, 김미정

06 월간 「공군」은 **[산소]**이다. 사람에게 있어 꼭 필요한 산소.
대한민국에게 있어 '공군'은 '산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 재밌게 읽었던 기사는 <Health Diary>의 '여름철 요
로결석 관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소변을 볼 때 긴가민가(?)
했었는데 증상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요로결석 수술을 받으셔서 관심 있게 읽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경기 동두천, 정사무엘

Global & Insight

역경을 딛고 주도적인 삶을

* Leadership+

노블레스 오블리주

* 삼각지 논객

군전이 되는 길

* World-Wide Vision

정밀폭격의 기원, 댐버스터즈의 체스타이즈 작전

* Global AF



LEADERSHIP

역경을 딛고, 주도적인 삶을

17여 년 전 정부 고위직에 있던 한 고위층 인사가 중견기업으로 발탁되어 부사장을 거쳐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세금포탈 문제로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몇 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50대의 그 사장은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며 코칭을 부탁해 왔다. 황량한 들판에 홀로 버려진 느낌을 뭐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소속으로 일할 때에 쌓아 놓은 평판과, 기업체 사장으로 승승장구할 때 언론에서 띄워 준 명성 등이 하루 아침에 추락해 버렸고, 어디에도 이 참담한 심정을 얘기할 수 없고 너무나 막막하여 '한때 명성을 누리던 사람들이 검찰 소환에서 돌아오는 길에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10년 후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예전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고 싶고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금의 심정이 어떠냐고 물으니 '대기업엔 씌우지 못하는 사회관행을

왜 하필 우리 회사에만', 그것도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장인 나에게만' 죄를 씌우느냐며 한없이 억울해 했다.

나는 그에게 지속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조건으로 리더십교육을 통한 삶의 주도성(proactivity)을 배우도록 했다. 주도성이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반응을 선택하되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다.

'왜 똑같이 과속을 했는데 하필 나만 잡느냐?'는 식의 피해의식에 꼭 차 있는 사람은 어떤 말로도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가 먼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동안 그 조건을 거부하던 그가 결국 교육을 받았고, 그러곤 다시 도움을 청해 왔다. 나는 그에게 알프레드 노벨이 평화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도록 했다.

스웨덴의 화학자인 노벨은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어느 날 프랑스 신문에 난 한 기사가 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라는 기사였다. 사실인즉 그의 형의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오보한 것이었다. 그 오보를 읽으며 그는 자기가 임종했을 때 주요 언론들의 사망기사와 보도를 상상해 보았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노벨 평화상을 제정, 오늘날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을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나는 그에게 노벨과 같은 이야기는 외국에는 너무나 많다고 하면서 최근의 유명 사업가와 정치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찾아내어 검토해 보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 총예산의 2배에 이르는 140조 원의 정크 본드(junk bond :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수익, 고위험의 채권)를 조성, 국제기업 사냥꾼으로서의 악명을 떨치던 마이클 밀켄이 교육사업가가 된 이야기, 스트립 걸인 크리스틴 킬러와의 스캔들로 영국의 맥밀란 정부를 위기로까지 몰고 간 영국의 존 프러퓨모 국방상이 자선봉사활동으로 유명해진 이야기 등을 그는 찾아냈다.

뿐만 아니라 닉슨 전 대통령의 특별고문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까지 간 찰스 콜슨이, 교도소선교회를 세워 전세계 교도소 수감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이야기며, 방송 매체에서 악명 높던 오지 오스본이 동물권리운동으로 수많은 시청자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한국인 중에는 그런 사례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당신이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운 자화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다.

몇 달 후, 다시 만난 그는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아마 그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아무리 지녀봐야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고통의 과정에서 체득하였을 것이다.

앞의 사례를 거울삼아 그는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갔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본 그가 명예회복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신선한 사례로 남을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AF

Proactive

Proactive is to
 initiate change rather than
 reacting to events in the
 acting in advance of a
 taking preemptory act

지난 6월 병무청은 3대에 걸쳐 일가족 11명이 모두 사병으로 입대해 총 313개월간 복무한 강건배 씨 가문을 '올해의 병역 명문가'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강씨 가문은 6·25전쟁에 참전한 1대 고 강재운 씨와 2대 아들 4형제, 3대 손자 6명 등 11명 모두가 사병으로 복무했다. 강재운 씨는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가 1954년 포로교환 때 귀환했다. 그는 중부전선 백마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포탄을 안고 몸을 날린 '육탄 3용사' 중 한 사람인 고 강승우 씨와 사촌 형제간이다. 2대 고 강광석 씨는 어린 조카에게 "삼촌 군대 다녀오마."라는 말을 남기고 입대했으나, 입대 후 1968년 10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찰임무 수행 중 조우한 북한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했다. 2대 고 강광남 씨의 둘째 아들인 강건후 씨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차출돼 군 복무를 마친 뒤 경기도 지역 고교에서 교사로 있다.

병역 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된다. 3대 가족 중에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공익 근무요원 등으로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물론,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병역 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역 명문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60가문이 선정됐고, 올해는 가장 많은 498가문이 신청했다.

병역 명문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선정된 명문가 가운데 유력인사나 유명인 가문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숭선수범해 전장터로 향했던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와 대비되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그런 씁쓸함을 덜어주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 이날 오전 경남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126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외증손자가 공군 소위로 임관한 뉴스였다. 이날 김구 선생의 외증손자인 김동만 소위 어깨 위에 은빛 철제 소위 계급장을 달아준 사람은 아버지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 또한 공군사관후보생 73기 출신으로 아들 김 소위의 선배 장교다. 김 의원은 육군 병사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장인이 전직 공군 수뇌부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군 장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공군학사장교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몇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부터 제15호성비행단 공군 부사관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군전우회 부회장으로 군 부대 위문품 전달 등 선행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김 소위는 “어린 시절 백범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굳은 기개에 대해 들으면서 자랐고,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3대(代)째 공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했다. 특히 어린 시절 함께 생활했던 외할아버지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6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김 소위의 어머니는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 전 총장의 딸이다. 외할아버지인 김신 전 총장은 해방 후 공군 창설에 참여해 우리나라 첫 전투기 조종사 10명 중 한 명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고, 1960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공군 수장인 참모총장이 됐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장으로 우리 공군 최대의 전공 중 하나로 꼽히는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을 이끌었다. 승호리 철교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 공군이 500회 이상 출격하고도 파괴에 실패했으나 김 전 총장은 미군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폭격을 감행토록 우리 공군 조종사들에게 지시, 폭파에 성공함으로써 미군의 격찬을 받았다.

김 전 총장은 한강 다리 모기비행 일화로도 유명하다. 6·25전쟁 전에 미군 장교와 모기비행 내기가 붙었는데 보기 좋게 이겼다고 한다. 미군 장교는 김 전 총장에게 다소 무시하는 투로 “당신이 무스탕을 조종했다고 하는데 저 한강 다리 밑으로 통과하면 50달러를 주겠다.”고 내기를 걸었는데 김 전 총장은 한강 다리 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당시 군 수뇌부에 알려져 혼썰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소위는 지난해 12월 제125기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한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소위와 사촌지간이기도 하다. 김용만 소위의 아버지는 김신 전 총장의 아들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김양 전 처장 역시 공군사관후보생(70기) 출신으로 1979년 공군 중위로 전역했다.

김 전 처장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대만에 있으면서 해양소년단 활동을 해 해군 장교를 지망하려 했지만 주위에서 “아버지가 공군총장 출신이신데 어떻게 해군 장교를 가려고 하느냐”고 만류해 공군 장교가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의 형인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 장교가 아닌 병사로 갔는데 공군 병장으로 제대, 공군가족의 일원이 됐다.

김용만 소위는 “어린 시절부터 백범일지를 읽고 백범 기념관을 오가며 증조부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공군사관후보생 훈련기간 중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겪었던 그는 임관 당시 “우리 공군이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공군을 만드는 데 전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소위와 사촌지간인 김동만 소위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를 공군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분이 걸어오신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군 복무에 임하겠다.”고 말한다.

백범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던 1941년 12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당시 광복군 낙하산부대를 편성해 본국 상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역사적 인연으로 후손들이 계속 공군에 입대하고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백범 가문이 국내 명문가로는 보기 드물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범 가문의 공군 사랑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군 사랑이 3대가 아니라 4대, 5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AF**



병역 명문가 강건배 씨 가문(출처 : 한국일보)



김용만 소위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김호연 국회의원



병역 명문가 백동림 씨 가문(출처 : 연합뉴스)

Making The Grade 군견이 되는 길

PUPPIES IMPRESS IN MILITARY WORKING DOG'S 'JUNIOR HIGH SCHOOL'
뛰어난 가능성을 보이는 예비 군견 강아지들의 “중·고등학교” 훈련 과정



지난번 벨기에 말리노종인 리스펙(Respect)과 루크(Ruuk)를 만났을 때, 그들은 보육 시설에서 즐겁게 뛰놀며 놀거리를 찾는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이제 이들은 유년기 개발 훈련을 받는 어엿한 훈련견으로, 리스펙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사물함 등을 탐색할 수 있으며, 루크는 적군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짚을 수 있다.

생후 8개월된 이들 예비 군견들은 미 국방성 군견 육종(育種)프로그램의 중등 및 고등학교 수준의 훈련과정을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 다음 단계는 군견 육성 과정 중 '대학'에 해당하는 텍사스 주, 래클랜드(Lackland) 공군기지 소재, 341훈련대대이다.

한 어미의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이들 R자 돌림의 강아지들은 지난 2010년 6월, 미 국방성 군견 육종 프로그램 시설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본 시설에서 태어난 다른 강아지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산된 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RR, SS처럼 이름의 첫 글자가 두 번 반복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각 새끼들은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

R자 돌림의 강아지 형제들은 군견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생식력이 뛰어난 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이름은 아놀드(Arnold)와 소냐(Ssonya)로 아놀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출산된 종은 아니다. 아놀드와 소냐는, 올해 2월에 U자 돌림의 강아지도 출산하였다. 그들의 자식인 R자 돌림의 강아지들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향후에 좋은 품종의 군견을 번식하는데 일조하게 될 수도 있다.

군견 운영 총괄 스튜어트 힐리아드 박사는 군견 육종프로그램 시행 2주차부터 지난 7개월간 7마리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볼 때 이들 R자 돌림 강아지들은 프로그램 사상 가장 뛰어난 종자 중 하나라고 힐리아드 박사는 말했다. 시험을 거친 7마리 중 6마리가 물기와 탐지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며, 다른 한 마리 역시 탐지 테스트에 통과했다.

"이들 군견들의 성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힐라드 박사가 말한다. "이들 군견은 단지 미 국방성이 보유한 6마리의 좋은 군견이 아니라, 향후에 더 좋은 품종의 군견을 양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매우 우수한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컷과 암컷의 종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특히 이 한 배의 강아지들(R자 돌림 형제들)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좋은 군견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발 훈련 3주차 당시, 리스펙과 루크는 캐비닛 탐색훈련을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중, 조련사의 줄에서 보다 빨리 뛰쳐나가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몸부림쳤다고 한다. 이들 강아지들은 장난감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었지만, 탐색하는 일에도 매우 흥분된 모습이였다. 탐색은 예비 군견 강아지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숨바꼭질 놀이와 같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순수하게 탐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루크의 수양부모이자 군견 조련사인 군견 육종프로그램 매니저 버나딘 그린 씨가 덧붙였다. "이들 강아지들은 사냥 본능이 매우 강해서 탐색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그 보상은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결국 일종의 물건 찾기 놀이인 셈이죠."

리스펙은 숨겨놓은 장난감을 찾기 위해 책상 위로 뛰어올라 캐비닛 서랍을 탐색하기 시작하며, 루크는 자기도 게임을 시작하고 싶은 의욕에 조련사인 아서 언더우드 씨가 천고삐를 힘껏 당긴다. 그리고 나선 목표물을 찾을 때까지 후각을 사용하여 여러 캐비닛을 차례대로 훑는다.

리스펙은 조련사가 끌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무한대로 가진 듯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리스펙의 가장 큰 장점은 "명령된 임무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리스펙의 수양부모인 조셉 놀 중사가 전했다.

"이 녀석은 목표물을 탐색하기 위해 낮은 포복을 하는 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 군견 리스펙의 생후 8개월째 모습. 훈련견 유년기 개발 훈련 3주차



루크가 자신의 장난감을 꼭 물고 있다. 이러한 장난감은 평범한 놀이기구에서부터, 훈련견에게 탐색훈련을 시키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 중사가 말한다. 놀 중사는 군견 채용 및 배치업무 담당 부사관이다.

비록 루크가 다른 형제들보다 몇 주 후에야 훈련을 시작했지만, 조련사들은 루크와 그의 다른 형제인 로디를 이 특별한 강아지들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한다. 생후 4개월 지났을 때, 루크는 뛰어 다니다가 왼쪽 앞발의 발톱이 부러졌고, 래클랜드에 위치한 홀랜드(Holland) 군견 동물병원에서 고정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고정 핀을 뽑았기 때문에 루크는 다른 형제들과 훈련을 같이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훈련 3일차에 이르렀을 때 루크는 이미 다른 대부분의 형제들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술에서 회복한 뒤, 우리는 풀밭, 장애물 더미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물건을 찾는 기본 사냥본능 연습단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린 씨가 회상했다.

“루크는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루크의 물기 능력은 잘 발달되어 있고, 사냥본능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강아지야말로 군견 임무를 위한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련사 그린 씨는 메릴랜드 주 경찰견으로 활동하다 암 발병으로 인해 안락사 조치된 자신의 전 강아지 이름을 따서, 루크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루크가 태어나기 불과 2주 전의 일이었다. 루크라는 이름에 걸맞게(주 : Rook는 체스에서 전차의 역할을 하는 성벽모양의 말을 뜻함.) 이 강아지는 매우 강한 사냥본능을 가졌고, 주인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한다. 이는 군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하지만 그린 씨는 루크가 이미 충분히 의욕적이고, 훈련을 통해 훌륭한 군견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른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루크가 이전 강아지보다 좀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루크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더우드 씨와 그의 동료 조련사인 댄 위드비, 코비 자카, 그리고 앤드류 침블러 씨는 P, Q, R자 돌림 강아지 형제들을 훈련시켰다. S자 돌림 강아지들은 지난 2월 수양시설에서 보육을 마치고 래클랜드 기지로 돌아왔고, T자 돌림강아지들은 이제 막 수양시설에 맡겨졌다. 강아지들은 유년기에 7개월에서 14개월가량 군견개발훈련을 받지만, 빠르면 약 10개월 뒤 군견훈련대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R자 돌림의 강아지들 중 몇몇은 조기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련사들은 내다봤다.

훈련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군견들에게는 중요한 실전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조련사들은 군견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실질적으로 매일 군 장병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장에서 현재 미군 장병의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급조폭발물(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에 대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군견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이 우리의 군견 훈련프로그램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드비 씨가 말했다. “제가 군견 운용병 코스를 밟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임무는 마약탐색 임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폭발물 탐색임무가 주된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군견보다 폭발물 탐지에 더 효과적인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침블러 씨가 사물함으로 가득찬 방에서 루크를 탐색 훈련시키는 모습. 훈련견 강아지들은 사물을 찾기 위해 위, 아래를 탐색하고, 코와 앞발을 사용해서 서랍을 여는 훈련을 받는다.

R자 돌림 강아지들이 수양시설에서 래클랜드 기지로 처음 돌아왔을 때, 이들은 약 2주간 특별히 마련된 우리(kennel)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우리에서의 생활은 수양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조련사들은 강아지들의 상태를 매일같이 체크하고, 운동시켰으며, 강아지들에게 기본적으로 수양부모가 없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훈련이 시작할 때쯤 리스펙, 루크 및 그의 형제 강아지들은 수양부모를 더 이상 찾지 않았고, 대신 조련사들을 찾기 시작했다.

조련사들은 18마리의 군견을 수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에서 약 4~5마리의 강아지들과 훈련을 한다. 처음에는 훈련병인 강아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장난감에 대한 소유욕, 사냥 본능 및 다른 환경에 대한 반응성 등을 테스트한다.

조련사들은 훈련을 위해 강아지들을 건물, 계단, 항공기 및 다른 훈련 공간 심지어는 군 차량수송부나 재활용처리장 같은 곳까지 데리고 가서, 시끄러운 기계 소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훈련을 시키는 동안, 조련사들은 군견들을 평가합니다.” 그린 씨의 말이다. “만약 훈련견이 어느 한 분야에 약하다면 그 부분을 메모해 두었다가,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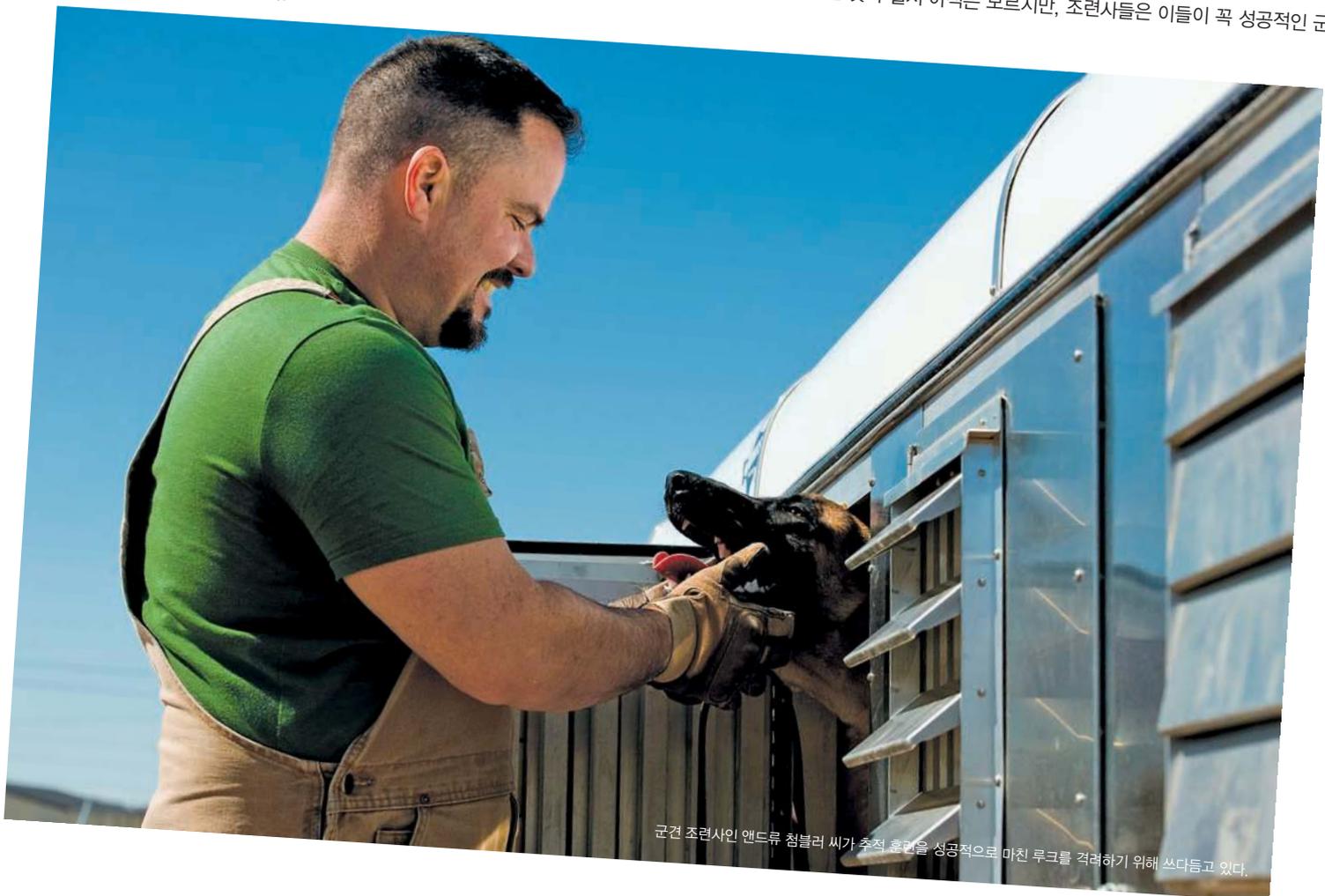
그린 씨는 “또한 조련사들은 강아지에게 짚기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미끼를 사용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몸동작과 움직임의 통해 개들을 짚도록 하지요. 훈련견이 반응을 하면, 유인물이 움츠러 들거나 자리를 피해, 개들에게 짚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고 설명했다.

물기 훈련을 위해선, 강아지들에게 새미가족 및 부드러운 형견 소매 등을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군견 훈련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진 일반 재질의 소매자락을 무는 훈련을 시작한다.

언더우드 씨는 이제껏 지켜본 이들 예비 군견들에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루크와 로디는 공격성 및 탐지능력에 있어서 조련사 4명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한다.

“루크는 훈련 첫째 날부터, 물건 찾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씨가 말했다. “3번째 또는 4번째 훈련부터는 그의 두뇌에서 훈련받은 내용을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스펙, 루크, 로디, 그리고 다른 R자 돌림 강아지 형제들은 조만간 “중등 및 고등학교” 수준의 개발 훈련을 마치고, 군견훈련의 대학과정으로 진학할 것이다. 이들의 역할이 미래에 생산적인 군견 품종을 번식하는 일이 될지, 전장에서 공군장병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조련사들은 이들이 꼭 성공적인 군견 임무견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AF**



군견 조련사인 앤드류 침블러 씨가 주적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루크를 격려하기 위해 쓰다듬고 있다.



체스타이즈 작전은 영국 공군의 자존심을 되살릴 중요한 임무였다. 사진은 작전을 논의 중인 가이 길슨 중령(가운데 왼쪽)과 국왕 조지 6세(가운데 오른쪽)의 모습이다.

세계주요항공전사 ③

정밀폭격의 기원

덴버스터즈의 체스타이즈 작전



1943년초부터 영국은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야간폭격을 감행했다. 특히 4발 엔진의 랭카스터 폭격기와 최첨단 무선항법장치가 도입되면서 폭격기사령부는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런 노력은 대부분 독일의 주요 산업도시에 대한 웅단폭격이었고, 특정목표에 대한 정밀타격은 없었다.

그러나 정밀타격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특정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폭격기사령부는 독일의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목표물을 미리 파악해놓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데르(Eder)담과 뫼네(Möhne)담이었다. 이 댐들은 독일의 핵심공업단지인 루르 지역에 물과 전기의 대부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루르지방의 댐을 파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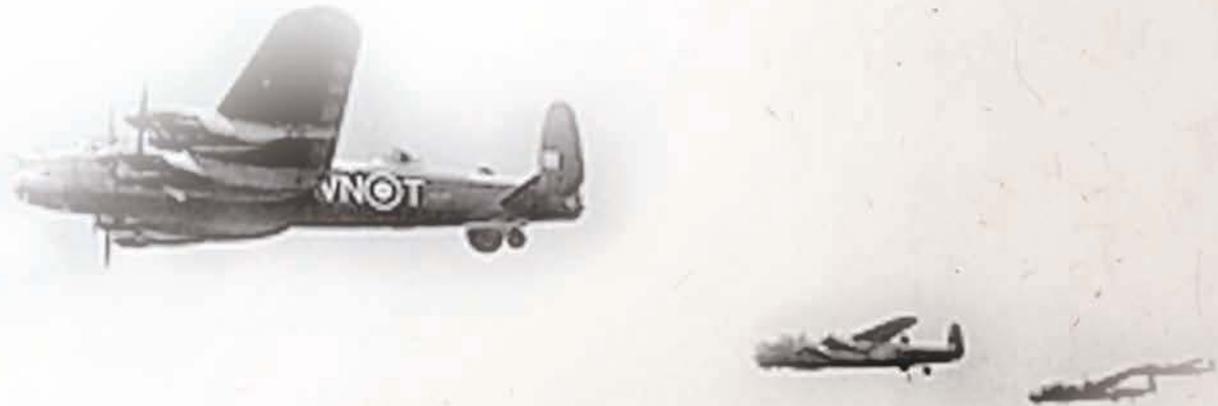
폭격기사령부의 아더 해리스 장군은 휘하의 폭격기들로 이 댐을 폭파시키는데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43년 3월 중순에 특수임무부대인 X비행대대(이후 617비행대대로 재명명)를 창설하여 에데르/뫼네담의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비행단만큼이나 이들이 사용한 폭탄도 매우 특별했다. 영국의 천재적인 공학자인 반즈 웰리스는 이 임무를 위해 '도약폭탄(Bouncing-Bomb)'으로 알려진 3톤짜리 폭탄을 개발하였다. 비행대대의 지휘관은 영국의 최고 전쟁영웅인 가이 킵슨(Guy Gibson) 중령이 맡았다. 겨우 24살에 불과했던 킵슨은 폭격기사령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전술가였고 천성적으로도 우수한 지도자였다.

링컨셔어의 스텝턴 공군기지에 모인 133명의 제617비행대대 부대원들은 전투베테랑에서 신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신참과 고참을 불문하고 이들은 모두 킵슨에 의해 선발된 인원이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랭카스터 폭격기들은 도약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조작업을 거쳤다. 한편 부대원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혹독한 훈련이 거듭되었다. 대원들은 저고도 침투비행훈련과 폭격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훈련의 목표는 정확한 폭격이었다. 폭탄의 개발자인 웰리스의 조언에 따르면 폭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50피트(45m)에서 투하가 이뤄져야만 했다. 또한 투하지점은 폭파지점에서 정확히 1,275피트(389m) 앞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야간에 정확한 고도와 거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랭카스터 폭격기의 기수와 동체후미에 서치라이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라이트의 빛은 폭격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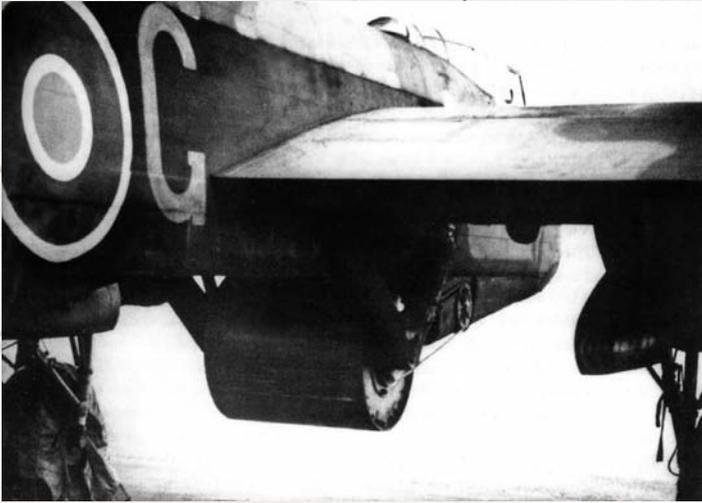


킵슨 중령은 겨우 24살의 청년이었지만 무려 170여 회의 작전을 수행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 조종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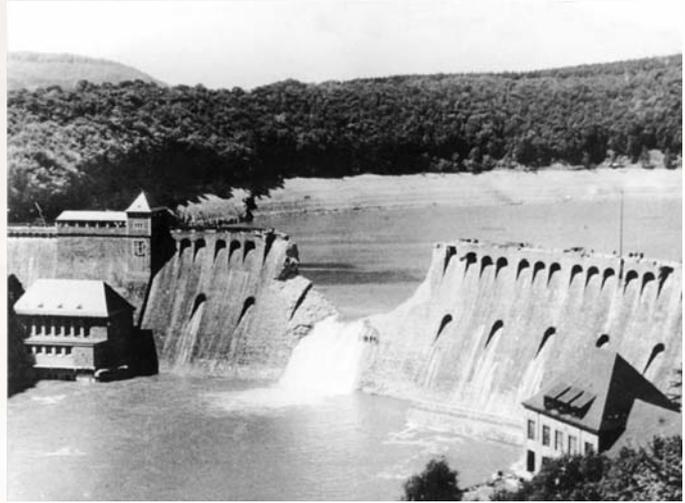


도약폭탄은 정확한 고도와 거리에서 투하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617대대의 조종사들은 치밀하게 리허설을 반복했다.





도약폭탄을 장착하기 위해 폭격기는 장갑을 떼어내고 하부 폭탄창을 바꾸는 등 철저한 개조를 거쳐야만 했다. 사진은 도약폭탄을 장착한 김슨 중령의 랭카스터 폭격기이다.



617대대의 공격으로 파괴된 뫼네뎀(7-009)과 에데르뎀(7-010)



도약폭탄을 투하 중인 랭카스터 폭격기의 모습



저녁 8시 30분에 출발한 폭격기들은 자정이 넘어서 드디어 최초 목표물인 뫼네뎀에 다다랐다.

정확한 고도에 이르러야만 표면을 제대로 비춰지도록 조정되어 있었다. 또한 정확한 폭격을 위하여 비교적 간단한 V자형 조준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이렇게 고된 훈련이 계속되는 사이 도약폭탄은 4월 29일, 최종테스트를 거쳐 5월 13일에 617대대에 인도됐다. 한편 5월 11일부터 14일 사이 617대대는 대규모의 가상실전훈련을 실시했다. 캔바스 타워 등 각종 모크업(Mock-up) 시설을 갖춘 최종리허설을 통해 617대대는 임무완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5월 15일, 김슨 중령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임무가 무엇인지 드디어 공개했다. 작전명 '체스타이즈(Chastise)', 작전목표는 루르지방의 뎀, 작전일은 5월 16일이었다.

공격 목표로 모두 6개의 뎀이 선정됐다. 김슨이 이끄는 주공인 제1편대는 폭격기 3대의 3개편대로 구성되었으며, 제1목표는 뫼네뎀, 제2목표는 에데르뎀, 잔탄이 있을 경우 제3목표는 조르페(Sorpe)뎀이었다. 제2편대는 5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며 목표는 조르페뎀이었다. 예비대로는 5대의 폭격기가 남아 제1편대가 이륙한 지 2시간 후에 이륙하여, 완파되지 못한 주요목표 3개소 이외에 부수목표인 리스텔(Lister)뎀, 디멜(Diemel)뎀, 에네페(Ennepe)뎀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목숨을 건 야간 정밀 폭격

김슨이 이끄는 제1편대는 5월 16일, 20시 30분에 이륙했다. 이들은 루르지방까지 독일 공군의 방공요격을 피하기 위하여 500피트(150m) 이하로 초저공비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폭격기 1대가 전선에 걸려 추락하기도 했다. 선두에 선 김슨의 랭카스터 폭격기는 자정이 조금 지나자 뫼네뎀에 도착했다. 독일군의 치열한 방공 포화를 뚫고 뎀까지 접근한 김슨의 1번기는 폭탄을 떨어뜨렸으나 목표에서 약간 빗나가 제방준설지에 떨어졌다. 2번기는 폭탄투하의 시기가 너무 늦어 뎀을 지나쳐서 폭탄을 투하했다. 뎀에는 피해를 못주었지만 뎀 뒤쪽의 발전소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미 심하게 대공포화에 피격됐던 2번기는 약 5km를 더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3번기에서 투하한 도약폭탄도 목표를 벗어나지만, 4번기와 5번기의 폭탄은 댐에 직격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댐 일대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다. 작전의 성공을 확인한 김슨은 작전성공시의 암호명, '니거'를 전송했다.

외네댐을 파괴하자 김슨은 폭탄을 투하하지 않은 나머지 3대의 폭격기를 이끌고 에데르댐을 향했다. 에데르댐에 이르자 새벽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너무 불량한 나머지 남은 폭탄 3발 가운데 2발이 모두 빗나갔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이 명중하면서 또다시 엄청난 수공이 시작되었다. 에데르댐 인근의 약 2억 평에 이르는 지대가 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작전성공에 잔뜩 고무된 제1편대는 귀환 중에 2대의 폭격기가 추가로 격추되고 말았다.

한편, 조르페댐에 대한 제2파의 공격은 처음부터 문제에 봉착했다. 출격한 제2편대의 5대 폭격기 중 무려 2대가 기체에 문제를 일으켜 귀환해야만 했다. 적진으로 다가간 3대의 폭격기 중 1대는 치열한 대공포화에 격추되었다. 그나마 남은 2대 중의 1대는 저공비행 중에 전력선에 걸려 추락했다. 남은 것은 오직 1대의 랭커스터 폭격기뿐이었다. 도착한 폭격기는 공격 각도를 잡기 매우 어려웠지만 무려 10회나 시도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정확히 도약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폭탄의 파괴력은 댐을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제3파인 예비대가 조르페댐을 파괴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예비 편대도 이미 접근 중에 2대의 폭격기가 추락했고, 1대는 대공포화로 인해 영국으로 복귀했다. 남은 2대의 폭격기는 1대가 조르페댐, 나머지 1대가 에네페댐을 향하여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공격이 끝나고 추락하지 않은 모든 기체가 스캠프톤 공군기지로 복귀한 것은 17일 06시 15분이었다.

댐버스터즈의 전설

작전에 참가한 19대의 폭격기 가운데 8대가 추락했으며, 그 중 2대는 복귀 도중에 추락했다. 모두 56명이 귀환하지 못했는데, 포로로 잡힌 생존자는 3명뿐이었다. 작전을 지휘한 김슨 중령은 빅토리아 크로스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작전 참가자들도 전원 수훈을 인정받았다. 617비행대대는 '댐버스터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이들의 공습작전은 영국 공군의 전설로 자리잡았다. 617 비행대대는 이후에도 다양한 정밀폭격임무를 수행했다. 617대대는 1980년대부터는 영국 공군 최초로 토네이도 전투기를 운용했으며, 2003년 이라크 전에서는 최초로 스텔스도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AF**



임무를 위해 선정된 기종은 아브로 랭커스터(Avro Lancaster) Mk III 4발 폭격기였다.



월간 「공군」의 400호 표지를 공모합니다!

❖ 접수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1년 7월 29일(금) ~ 9월 2일(금)
- 결과발표 : 월간 「공군」 400호(2011년 10월호)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주제

- 숫자 400과 공군을 연관시킬 수 있는 모든 것!

❖ 작품규격

- 220mm×280mm(JPG & PSD), 300dpi 이상

❖ 문의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편집담당 류재영 소위

Tel. 02-506-6935 C.P 010-4958-7117

E-mail heyclickman@gmail.com

※ 대한민국 공군(www.airforce.mil.kr) 홈페이지에 오시면 월간 「공군」의
지난호 표지와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디자인 선정작(1명)
iPad2 WiFi 64G



우수작(3명)
헤드폰 Beats by Dr.Dre

공군 IN

항공구조사들의 뜨거운 여름!
必求人命 必求人命, Anytime, Anywhere!

항공구조사들에게 들어본다
* 기획특집

뜨거운 여름
「비상飛上:태양 가까이」 촬영현장
* Photo Sketch

상병진급캠프:
“멋진 선임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 Zoom in the AF

병영을 바꾸는 힘,
우리에게도 있다

* 장병기고

* 포토프레임@AF

* AIR FORCE MONTHLY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는 이유
* 생각하는 그림



1999년 6월 미 백악관, 하이라인으로 무인기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국방장관, NATO 연합사령관, 백악관과 펜타곤의 참모들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노타하며 지휘한다.

위장명은 바로 보스니아에서 추락한 미 공군 전투기의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 추락직전 비상 탈출한 그 조종사는 세르비아 민병대가 엄격한 적진 기공지에서 미 구조팀에 의해 구출되어 건강함 모습으로 귀환했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SART, Special Air Force Rescue Team)는 '있어서는 안 될, 하지만 철저히 대비 하지 않으면 안 될' 조종사 구출작전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부대입니다. 비상탈출한 조종사가 있는 곳이라면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적진 한 기공지든 그들은 언제라도 갑니다. "내 목숨을 버려도 되겠다"는 모토는 여타의 특수부대와는 달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들의 임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항공구조사는 자격, 공중침투(고공강하), 산악등반, 수상·수중침투(스쿠버), 응급의료 등 특수작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겸비하여 갖춰야 합니다.

항공구조대 8월호를 독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현장. 바로 공군 항공구조대의 수상·수상 탐색구조활동입니다. 또 가끔 여름을 더 뜨겁게 그늘의 현장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Anytime, Anywhere!

必求人命

원구인명

항공구조사의 뜨거운 여름!



이번 훈련은 전시에 해상으로 비상 탈출한 전투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사진출처: 인터넷)



조난당한 조종사는 연막을 피워 오고 있을 구조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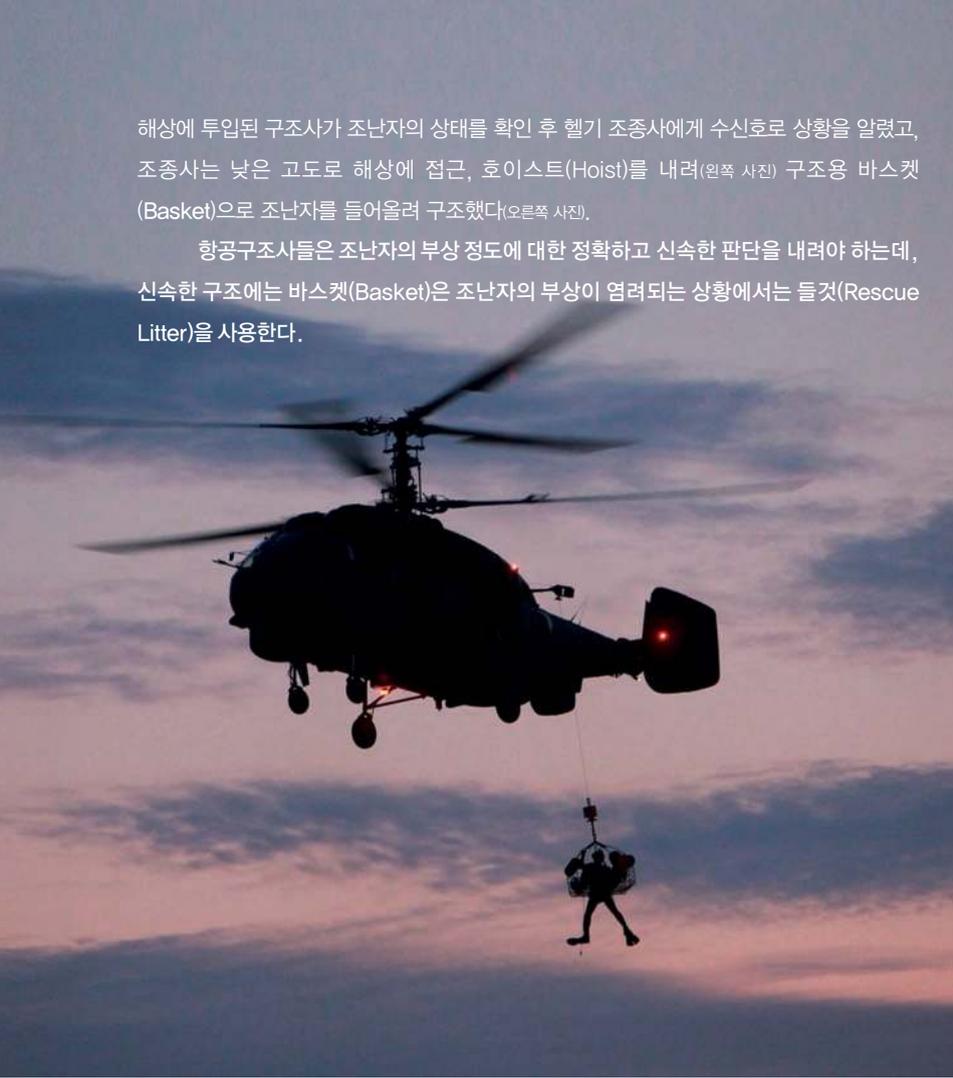


항공구조사 요원이 탑승한 탐색구조헬기 2대가 조난현장 인근 해상에 도착하자 먼저 구조사는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상용 연막을 투하한 후 바다에 뛰어들어 인명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해상에 투입된 구조사가 조난자의 상태를 확인 후 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로 상황을 알렸고, 조종사는 낮은 고도로 해상에 접근, 호이스트(Hoist)를 내려(왼쪽 사진) 구조용 바스켓(Basket)으로 조난자를 들어올려 구조했다(오른쪽 사진).

항공구조사들은 조난자의 부상 정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신속한 구조에는 바스켓(Basket)은 조난자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에서는 들것(Rescue Litter)을 사용한다.



또한 육지 인근 해상에서 비상 탈출한 조종사가 낙하산을 착용한 채로 조난당했을 경우를 고려한 훈련도 실시됐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조난자가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사들은 조난자를 안전하게 구조보트로 후송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이후 전투기가 해상에 추락했다고 가정하여 수중에 가라앉은 항공기의 상태를 살피는 동시에 미사일을 포함한 주요무기, 각종 자료를 탐색 인양했다. 수중 15m까지 잠수한 구조사들은 바다 속 시정이 50cm 이하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항공기 내부와 미사일의 상태를 탐색했고, 상황보고 후 인양해도 좋다는 상급부대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을 부양백에 고정, 물위로 인양하는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탐색구조와 인양훈련을 마친 항공구조사 전원은 적 지역으로 침투하거나 조난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력과 수영능력을 키우기 위해 3km 장거리 침투 수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유사시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체력소모의 극한을 경험하는 동시에 죽음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항공구조사들에게 들어본다.

[공/통/질/문]

1. 항공구조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2. 항공구조사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3. 항공구조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4. 항공구조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

원사
김선표



좌우명 :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1. 임관 전 특기 분류 때, 고(故) 안종구 준위님이 항공구조사에 지원하라고 권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군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한 순간의 망설임 없이 항공구조대에 지원했고, 동기 6명과 함께 항공구조사가 되었습니다.
2. **조종사의 마지막 희망전사!**
3. 6전대의 구호인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라는 말처럼 어떠한 조건에서도 투입될 수 있는 항공구조사의 모습이 내게는 가장 보람된 모습입니다.
4. 항공구조사로 근무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행운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항공구조사의 일원으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항공구조사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강한전사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나를 믿어주는 아내와 나의 희망인 아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중사
강동훈



중사 **강동훈**

좌우명 : 한번에 끝내자

1. 정말 '많은 것' 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공수, 레펠, 페스트 로프, 수영, 잠수, 산악, 빙벽, 암벽, 의무 등. 한번 뿐인 인생, 이왕이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맥가이버!** 임무의 특성상 100명의 람보보다 1명의 맥가이버가 필요합니다. 산악, 비행, 강하, 잠수 등..각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3.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한 1년 동안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2003년 크리스마스날 처음으로 비상대기근무를 썼었습니다. 그 때, 백령도에 있는 6살 여자아이의 긴급수술을 위해 육지의 병원으로 후송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모두가 포기해도, 우리 항공구조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항공구조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포기해도,
우리 구조사들은 절대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사
방 창 수



상사 방 창 수

좌 우 명 :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살자!

1. 조난에 처한 어려운 사람을 구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작지만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내 한 몸 불태우리라는 강한 책임감과 항공구조사로 활동하게 만드는 강한 군인정신이 되었습니다.
2. 항공구조사를 설명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항공구조 필구인명, 붉은베레 최강공군!
3. 저는 연평도가 고향입니다. 악천 후 속에서 환자공수 임무를 부여받고, 연평도에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그 환자가 공교롭게도 제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항공구조사가 되어 고향 형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4. 앞으로도 후배 항공구조사들에게 강한 구조인의 정신을 물려주고, 내 목숨보다 조난에 처한 인명을 더욱 소중히 하는 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항공구조사가 되고자 합니다.

하사
김 태 희



하사 김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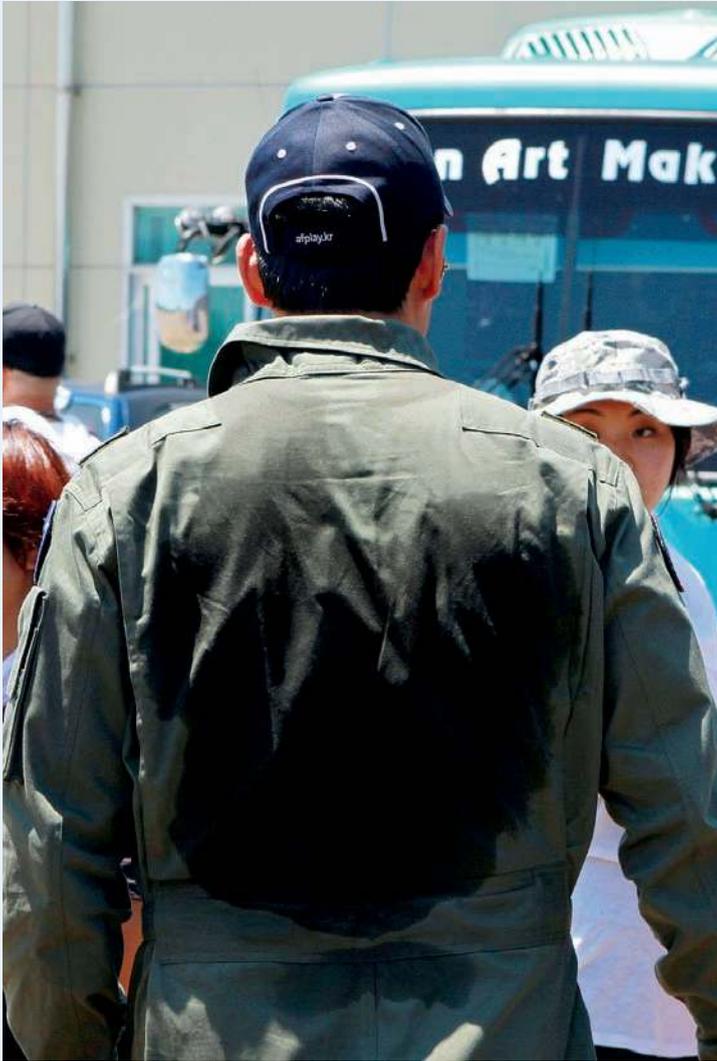
좌 우 명 : 발보다 행동으로!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명구조대원이 꿈이었고,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응급구조사 1급, 스쿠버, 수상인명구조원, 스키 파트롤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구조대는 공군 항공구조대라고 생각해서 육군 의무병 복무 중 항공구조사 특별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검붉은 피의 사나이!** 생명의 필수조건인 피를 상징하는 검붉은 베레모를 쓰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백령도에 거주하시는 한 노인분이 사고를 당해 응급처치 후, 인천으로 이송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잘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선배님들에게 구조노하우를 잘 전수받고, 체력단련 및 자기 계발에 힘써 구조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선배님들이 세운 항공구조대라는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물과 거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 촬영 현장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액션블록버스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비지땀을 흘리며 촬영에 매진하고 있는 출연진 및 스태프들을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진제공 : CJ E&M Pictures)



비상출발 : 태양 가까이





“멋진 선임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군 병사로서 상병 진급 전의 모든 병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캠프. 군 복무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지난 군 생활을 되돌아 보고 남은 1년 여의 시간을 재설계하는 시점. 신병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바람직한 선임병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 기본군사훈련 후 모일 기회가 없었던 동기들이 한데 모여 군 생활에 대해, 진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공군의 상병진급캠프(이하 상캠)에 대한 설명들이다.

병영 내에서 상병은 단순히 ‘일병보다 하나 더 높은 계급’이 아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병사들은 상병으로 진급하면서부터 근무현장에서나 생활관에서 선임병으로서 리더 역할을 수행해가기 시작한다. 또한 숙련된 기량과 업무에 대한 이해로 후임병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이끌어야 하는 계급이기도 하다. 상병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 부대의 임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니와, 상병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생활관의 분위기는 견잡을 수 없이 어두워지게 된다. 공군이 지난 2007년부터 상캠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올 들어 여섯 번째 상캠이 정훈공보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입과 대상은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병 689기 전원이다. 그동안 쌓아온 상캠의 명성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가지는 동기들과의 2박3일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그동안의 임무와 무더위로 피곤에 지쳤을 법도 한데 입과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하다.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 PR, 자랑스러운 만들기, 계급 바꾸기 역할극, 상담교육, 독서강연회, 다부동전적지 견학,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건강검진, 그리고 단장과의 시간 등 상캠의 주옥같은 프로그램들이다.





입과자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야랑신문 만들기'**

병사들은 소속 대대나 부서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거나 주변의 깨알 같은 뉴스들을 엮어 흥미로운 신문을 제작해 발표한다.

'계급 바꾸기 역할극(Role Play)'

은 병영 내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재연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입과자들은 자신들이 대본을 쓰고 연출한 역할극을 통해 관행적으로 전해져오는 악폐습의 폐해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수송대대 이찬규 상병은 선임들로부터 구박 받으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병 역할을 실감나게 연기해 보는 이들의 공감과 박수를 자아냈다. 이 상병은 "비록 연기였지만 내 책임도 아닌 일로 선임들에게 괜히 핍박받는 위치에 서게 되니 많이 우울해졌다"면서, "우리 동기들은 절대 무의미한 악폐습들을 반복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울챙이'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개구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진정한 병영문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상캠의 대미는 뭐니뭐니해도 **'단장과의 시간'**

비행단 근무하면서 단장님을 가까이서 볼 기회는 흔치 않다. 더욱이 단장님과 병사들의 일상을 주제로 건의사항을 포함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여유롭게 나눌 기회는 사실상 상캠이 유일한 셈이다. 황성돈 단장은 올해 들어 한번도 예외 없이 상캠 '단장과의 시간'을 주관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 병사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병사들의 생활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캠이 소중히 여겨지기는 마찬가지다.

상병 진급의 의미, 그리고 선임병의 위치에 올라선다는 의미.. 상캠 입과 병사들은 자칫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그 의미들을 동기들과 함께 꿈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자신이 입고 있는 제복, 자신에게 주어진 계급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나아가 1년 남짓 남은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더 넓고 크게 펼쳐질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그려본다.

상병들이 먼저 변하면 그 다음엔 공군의 병영문화도 바뀔 수 있다. 아니, 2007년부터 공군 전 부대가 운영해 온 상캠으로 인해 공군의 병영문화는 사실상 바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상캠을 수료한 병사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들 스스로 상캠을 정훈교육의 명품 프로그램으로 꼽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AF**



병영을 바꾸는 힘, 우리에게도 있다



으뜸병사단이 주관한 잔반줄이기 캠페인

병사들의 병영생활이라 하면 흔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수동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병사로서는 스스로 무엇을 고치려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1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군 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 답답함이 느껴졌다. 왜 병사들은 이곳의 일들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혹시 병사들 스스로 자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고민하던 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비행단 병사대표인 '총 으뜸병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온 것이다.

병사 스스로가 병영 문화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침내 '총으뜸병사'에 도전, 군대생활의 2막을 시작하게 되었다.

막상 상변하고 나니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각 대대 으뜸병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점호시 인원점검을 잘 실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병사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살릴 인식과 비전이 부족했던 것이다.



자원봉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으뜸병사단



우름병사단이 직접 담당하는 강연회



상변하고나서 먼저 각 대대별 으뜸병사들에게 각자의 권한과 위치를 인식시키며 이 자리가 단순히 휴가를 더 받기 위한 자리 정도가 아님을 깨닫도록 했다. 그리고 으뜸병사단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병사 활동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탈피하여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제시하고 추진해나갔다.

무엇보다 병사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가능한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우리 스스로도 함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노력했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닌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우름병사단과 함께 노력하고 고민한 결과, 자칫 유명무실할 수 있었던 으뜸병사단의 활동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강사 섭외에서부터 초청, 진행까지 으뜸병사단이 직접 담당하는 강연회를 열었다. 결과는 대성공. 인원 동원 없이도 약 180여명의 병사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강연을 진행할 수 있었다. 비행단 내에서 과도한 잔반 발생이 문제로 제기되자 지원대의 협조를 구해 매일 중-석식 때마다 퇴식구에 서서 스스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다. 지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병사들 스스로 독려한 결과 매일 1인당 90g이 넘는 잔반량이 50g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단체 등과 교류하여 으뜸병사들이 자원봉사 도우미로 활동하고, 비행단으로 장애우들을 초청하는 등 대외 병사 활동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병사들 스스로 의견을 내고 실천에 옮긴 일이었다.

사실 병사로서 부대에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병사로서의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단장님과 단주임원사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은 큰 힘이 되었고, 으뜸병사단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지휘관 참모님들이 있었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함께 한마음으로 활동한 20명의 으뜸병사단의 헌신과, 익숙하지 않았을 '자율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병사들도 우리 으뜸 병사단에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총우름병사'에서 하변하여 일반병사로 돌아가지만, 이번에 경험한 자율적 리더십은 내게 큰 자산으로 남았다. 병사들 역시 자율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으뜸병사단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나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더 나은 병영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AF**



212대대 현장지도 방문

참모총장은 7월 19일,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현장지도 일환으로 212대대에서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비행교관·교수와 학생조종사 등 대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학생조종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212대대에 〈처음부터 올바르게〉란 모토가 있는데, 간결하지만 만고진리를 담은 소중한 가르침으로 학생조종사 시절의 비행습관과 안전의식은 앞으로의 군 생활에 있어서 평생을 좌우한다.”며, 국가와 공군, 비행교관과 비행임무 지원요원,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과 성원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으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비행훈련에 최선을 다해 정예 조종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 공군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7월 20일, 이라크 공군사령관 안위 하메드(Anwer Hamad) 중장 일행을 접견하고 T-50 수출지원, 군사교류 확대 등 양국 공군간 공동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다수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라크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듯이 양국 공군간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공군의 선진화된 비행교육체계는 교육기간이 단축되고, T-50 운영을 통해 신예전투기 적응 및 운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2005년 T-50 전력화 이후 현재까지 3만여 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하고, 운영 유지비 절감 등 성능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美업체와의 공동개발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서부항공방면대 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7월 6일, 공군본부를 방문한 일본 서부항공방면대 사령관 나카시마 쿠니스케(NAKASHIMA Kunisuke) 중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지난 3·11 대지진에 의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애도와 함께 대지진과 해일에 따른 항공자위대의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며, “일본의 지진피해시 우리 공군 수송기가 긴급 구호활동 지원에 참여한 것도 그동안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공군간의 협력 필요성이나 미래 동반자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위원장 접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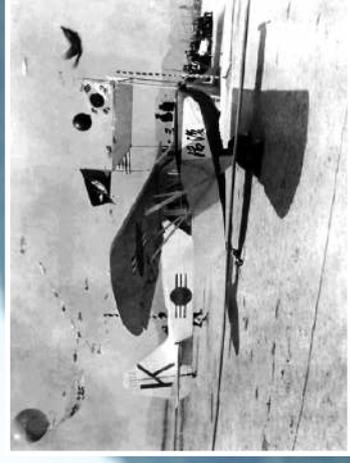
참모총장은 7월 7일, 3군 합동 아카데미 강연을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이배용 위원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국가브랜드는 결국 하드 파워가 아닌 문화, 역사 등의 소프트 파워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군은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공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위원장께서 전해준 지혜를 참고해 밝은 공군 미래 창출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

‘부활(復活)호’, 이름 그대로 58년 만에 부활!

2011년 7월 14일,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활호’가 58년 만에 다시 창공으로 비상했다. 부활호는 1953년 10월 10일, 사천 공군기지에서 조립·제작됐으며, 1960년까지 정찰·연락 및 초등비행훈련용으로 사용된 경비행기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활’이라는 휘호를 받았다.



미래전 승리를 위한 항공우주력 발전방안 논의
제14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원이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후원하는 제14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6월 28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 중 하나인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전투수행과 군사

혁신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언론, 방위산업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난 199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는 ‘21세기 전략혁신(Stratgy Innovation)과 공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 21세기 전략혁신과 공군의 역할(Session I) △ 동북아 전략구도와 한반도 군사긴장 : 공군의 역할(Session II) △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와 차세대 전투기(Session III) 등 총 3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종현 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우리 군의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창조적이고 유연한 항공우주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규 前 총장, 부인 사십구재(四十九齋) 소요비용 장학재단에 기탁
 제5대 공군참모총장 김창규 장군이 부인 별세 후, 사십구재를 여는 대신에 그 소요비용을 순직한 후배 조종사 유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창규 前 참모총장과 가족들은 생전에 순직한 조종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며 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던 고인의 뜻을 받들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다 뜻깊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사십구재를 여는 대신에 소요비용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군은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김도호 소장 주관으로 7월 5일, 공군회관에서 김창규 前 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김창규 前 참모총장은 “이번 장학금 기증은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더욱 전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 세상에서 아내도 기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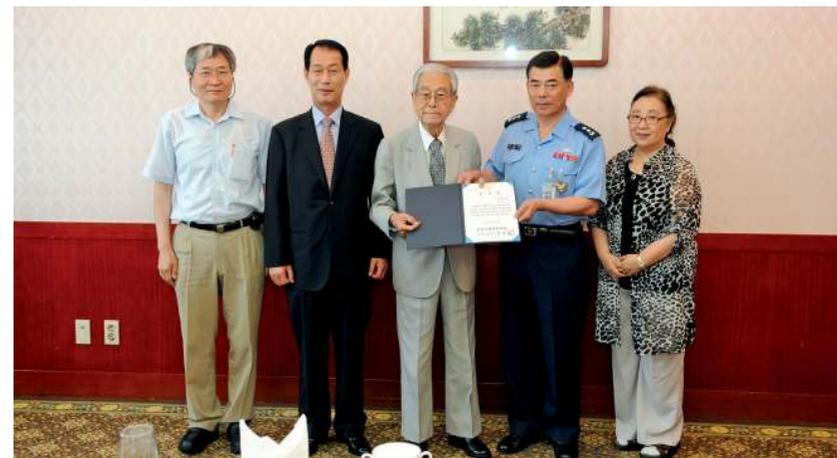
1,000번의 출동, 33년간의 대장정
제7항공통신전대, 33년간 1,000회 전술이동통신 출동지원 달성



제7항공통신전대는 지난 6월 28일, 전술이동통신 대대 창설 33주년을 맞이하여 전술이동통신 출동지원 1,000회 기록 수립 기념식을 가졌다.

전술이동통신작전은 유사시 고정통신시설 중단 등의 상황에 대비해 전국 각지에 산재한 레이

더 기지와 통신소에 출동해 긴급전술통신망을 구축하는 작전을 뜻한다. 제7항공통신전대장 정재순 대령은 “통신망 구성을 위한 노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제7항공통신전대는 매 작전시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품질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1,000회 출동지원을 또 다른 자기혁신의 기점으로 삼고, 향후 진일보한 전술통신망 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영합니다. 공군 애호단체

제8전투비행단, 국민조종사 동호회 및 공사모 초청행사 가져



동호회 회원 및 공사모 회원들은 CPT 견학 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F-5 전투기에 탑승하여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ACMI 견학 시에는 스크린을 통해 가상 적기와 모의 공중전을 실시하는 장면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조종사들의 실전적 비행훈련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비행단 정훈공보실장 김권희 소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으로서, 국민에게 한걸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은 살리되 틀은 과감히 깨야 공군군악대, 공연콘텐츠 개발 세미나 개최



참가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 뮤지컬이나 난타 등 대중적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 진출 △ 연주곡은 물론, 공연장소나 관객과도 부합되는 스토리 개발 △ 공군이 제작 지원하고 있는 영화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의 줄거리나 OST를 활용한 공연 추진 △ 오디션을 통해 공군 장병, 또는

남자친구를 공군에 보낸 여성 등을 선발하여 스토리가 있는 공연물을 기획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군군악대 초청기에 이름을 붙였던 캠페인드 '플라이보이(Fly Boy)'나 공군오케스트라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최영호 대령은 “군악대는 장비 전투의지 고양과 사기 증진이라는 고유의 임무 외에도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홍보매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공연콘텐츠 측면에서는 공군군악대의 고유 색깔과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콘텐츠 발전을 위해 군악요원 교육, 예산 확보, 인력구조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라차차 4연패!! 제18전투비행단, 참모총장기 태권도대회 4연패 달성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공군사관학교 무용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공군의 전 부대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겨루기와 품새 부문에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제18전투비행단은 금 3, 은 1, 동 4개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군 내 태권도 최강부대라는 명예를 차지했다. 특히, 제18전투비행단은 제17회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해 우승기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 바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대회 4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제18전투비행단의 태권도 감독을 맡은 최백규 상사는 “태권도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없으면 수련하기 힘든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군의 전투기술”이라 하며, “이번 우승이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고양하고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관후보생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제126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신임장교 428명의 힘찬 비상!**

공군교육사령부는 6월 30일, 박종현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교육사 지원관·참모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내빈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6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가졌다.

이날 영예롭게 임관한 428명의 신임 장교들은 지난 3월 14일에 입대하여 15주간의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통해 지휘능력과 직무지식,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연마하여 앞으로 조국 영공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예 공군 장교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이번 제126기 사관후보생은 <임관종합평가제>가 최초로 적용되어 훈련 단계별로 핵심 교과목 평가를 통해 전투지휘 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을 검증받는 등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엄격한 훈련과정을 거쳤다. 임관식은 수료증서 수여, 시상, 임관 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참모총장 훈시, 공군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신임 장교들은 임관선서를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임무수행을 다짐했다.

신임 장교들은 개인 전공, 적성 및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특기를 부여받았으며, 일정기간의 특기교육 과정을 거친 후 공군 각 부대에 배속된다. 이번 임관자 중에는 행정·입법고시 합격자 4명, 공인회계사 6명, 약사 면허자 4명, 교원 자격자 17명 등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박종현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기본군사훈련과정을 마치고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임관과 동시에 부하들을 지휘하고 통솔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므로 초급장교로서 항상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강직하고 담대한 면모를 보여 군 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 ▲ 국방부장관상 : 손승원 ▲ 합동참모의장상 : 조정빈
- ▲ 공군참모총장상 : 김지훈 ▲ 공군교육사령관상 : 이은준
- ▲ 기본군사훈련단장상 : 황두산 ▲ 학사장교회장상 : 윤석규



화제인물 I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남아입니다!
해외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복무를 위해 자원입대한 박정복·정현준 소위

화제인물 II

장군의 아들! 아버지 따라 영공 수호의 최일선에 서다.
공군 현역 장군인 아버지 뒤를 이어 조종사의 길 택한 이환철·하승환 소위



화제인물 III

4대를 이어온 애국정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군 명문가'
김동만 소위,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 김신 공군참모총장 외손자로 자원 입대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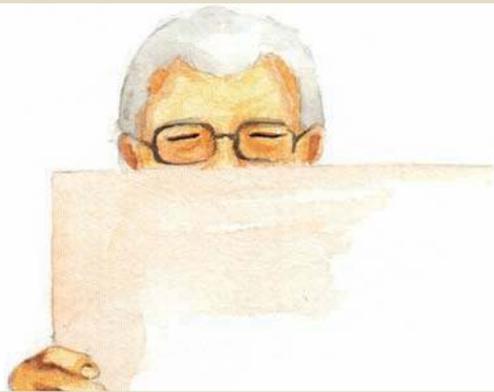


한평생을 조각퍼즐만 만들어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마다 새로운 퍼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열정적이고 유능했던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그를 찾아와 퍼즐을 구경하고 사가서 신나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손자뻘 되는 녀석들의 해맑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제 지긋이 나이든 그에게 남은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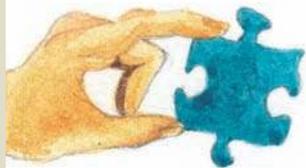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일이 힘에 부침을 느끼게 된 노인은 이젠 더 이상 퍼즐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장 멋진 퍼즐을 만들어 선물해야지.'

가게 문을 닫고, 생애 최고의 퍼즐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만 몰두한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밑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성 위를 힘차게 날고 있는 반짝이는 유니콘 세 마리를 그린 그림은 노인의 평생의 노력이 집약된 역작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만들기 위해 그림을 조각내려다 말고 노인은 손에 들었던 칼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칼을 대기에는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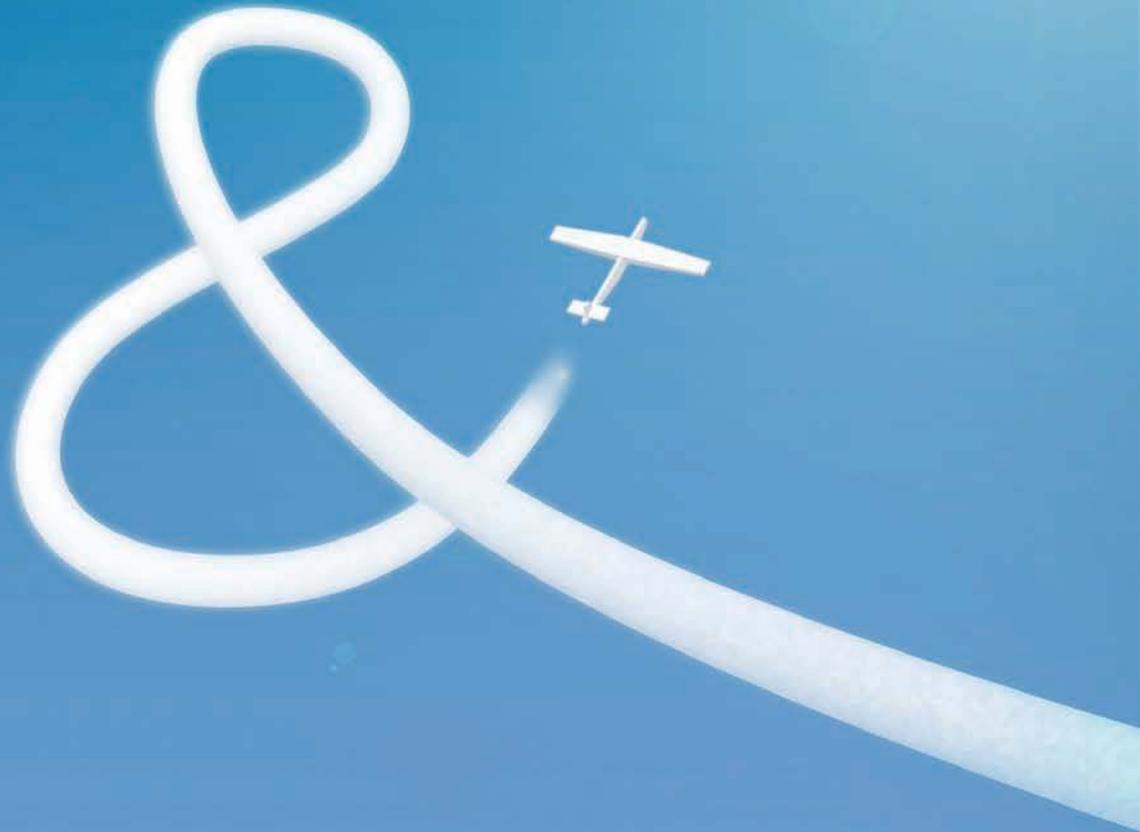


“굳이 조각을 낼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은 항상 퍼즐을 맞추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어려움 없이 손쉽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노인은 이번에는 퍼즐조각을 만들지 않은 채 밑그림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노인의 생각과 사뭇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퍼즐이에요?”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퍼즐을 맞추지 않아도 그림을 볼 수 있으니 좋잖아.”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예쁜 그림이죠.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퍼즐을 맞추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재미있었던 말이에요.”



그제야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고, 정성을 다해 퍼즐을 조각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퍼즐을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각을 틀리게 끼워도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면서 스스로 길을 터득해 나가는 것, 그게 퍼즐 맞추기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127시간

* Hollywood English

절대반지의 탐욕이 불러온 라그나로크,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 인생은 아름다워

광화문연가, 작품 속을 거닐다

* Art in Everyday

Kiss & Cry,
결과보다는 과정의 치열함을

* Air-Su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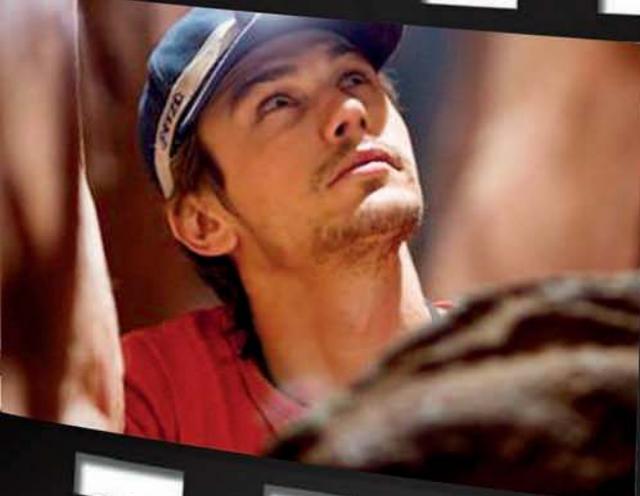
8월의 문화행사

* Preview

127 HOURS

FROM ACADEMY AWARD WINNER
DANNY BOYLE

NOVEMBER 5



생과 사를 넘나든 127시간의 실화

하이킹과 암벽등반을 즐기는 1975년생 아론 랄스톤(Aron Ralston)은 약관(?) 28세 때 자서전을 냈습니다. 제목은 '6일간의 깨달음(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입니다. 영어 제목은 '진퇴양난에 빠진'이란 뜻의 관용어구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큰 위기에 빠졌었기에,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자서전을 쓸 결심을 했던 걸까요? 아론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진 건 2003년 4월 26일입니다. 하이킹을 떠났다가 추락해 깊은 암벽의 틈에 낀 것인데요, 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생과 사를 넘나든 127시간의 기록인 '6일간의 깨달음'은 <슬럼독 밀리어너 Slumdog Millionaire>를 감독한 대니 보일을 사로잡았으며, 마침내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로 완성됐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127시간(127 Hours)'입니다.

미국 유타 주 블루 존 캐년에서 조난되다

무대는 미국 서부 유타 주. 첩바퀴 일대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마다 아론(제임스 프랭코)은 떠납니다. <127시간>은 아론이 여느 때처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평소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좋아하지만 대자연 속에 자신을 내던질 땐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변하는지를 아론은 다채롭게 증명해 보입니다. 거칠고 가파른 지형을 지프로 거리낌 없이 질주하는가 하면, 산악자전거와 함께 곤두박질치고도 마냥 좋아라하며 낄낄댁니다. 어쨌거나 그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론이 찾아가는 곳은 블루 존 캐년(Blue John Canyon). 모험을 좋아하는 아론은 그날도 지도 밖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이드북이 안내한 내용보다 45분이나 단축할 수 있는 코스에 막 진입한 아론은 길을 잃은 두 명의 여자를 발견하는군요. 자신을 트레일 가이드라고 소개한 아론은 '진짜 스킬'을 즐겨보지면서 두 사람을 이끌고 신비의 샘에 달려갑니다. 그곳은 깊은 암벽 틈 아래 형성된 샘입니다. 짜릿한 추억을 함께 만든 두 여자는 곧 있을 파티에 아론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를 그 순간, 그들은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워 보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강한 힘은 없다

아론은 다시 홀로 달립니다. 어떤 코스에서든 그는 '가지 않은 길'만 골라 정복감을 채우는 사람처럼 비칩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의 자유도 영화상영 20여 분만에 끝나버립니다. 아뵤싸, 거대한 암벽 틈에 발이 빠지면서 추락한 건데요, 헛디딜 때 함께 떨어진 360kg의 바윗덩이가 그의 오른팔을 암벽 틈에 짓이겨 버립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아론은 SOS를 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안 챙겨왔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아론은 마음이 무척 들뜨던 나머지 다목적용

스위스 아미 나이프도 챙겨오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영화는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강한 힘은 없다.(There is no force more powerful than the will to live)'는 홍보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난 5일째에 이른 아론에게 그런 문구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살겠다는 의지가 서서히 바서집니다.

'소홀히 보낸 시간이 나에게 가하는 복수'

어둠이 드리워지고, 서서히 죽음을 예감한 아론은 부모님께 남길 마지막 작별 인사를 캄코더로 녹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서 참 행복했다는 말도, 전화하셨을 때마다 일부러 안 받은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작별인사를 끝마친 아론은 이어서 암벽에 뭔가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름과 출생일 그리고 사망 추정날짜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관해 짤막한 기록을 남긴 후 아론은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자책합니다. "바윗덩이는 태곳적부터 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과거의 내 모든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를 바윗덩이와 함께 이 암벽의 틈 속에 가둔 거야." 그순간 그는 어쩌면 나폴레옹의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군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소홀히 보낸 시간들이 나에게 가하는 복수이다." 아론은 제멋대로 살아온 세월들이 바윗덩이라는 이름의 불행으로 화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그는 의식을 잃습니다.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Every second counts)'

6일째의 해가 뜬다. 죽은 것만 같던 아론도 눈을 뜬다, 기적적으로! 그순간 아론의 눈앞엔 미래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아지랑이 같기도 합니다. 아들을 무등 태워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매순간은 소중한기에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Every second counts)'는 메시지가 그의 의식을 자극합니다. 아니, 난타합니다. 정신을 추스린 아론은 비장한 각오로 작은 손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칼날을 펴 오른팔에 갖다 댁니다. 팔을 자르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칼끝은 이미 무뎠어 있습니다. 그 칼로 바윗덩이를 쪼개보겠다고 발악했던 며칠간의 무모함만큼이나...! 과연 그는 성공할까요? 그랬기에 그가 자서전을 쓸 수 있었겠지요. 기록에 따르면, 훗날 바윗덩이를 제거하는데 열세 명의 인력이 필요했다고 하는군요. 되찾은 팔은 화상됐으며, 6개월 뒤 아론은 사고현장(Accident scene)에 찾아갑니다. 그 날은 아론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10월 27일)이자, 뱃가루를 암벽 틈에 뿌려줌으로써 오른팔에게 영원히 이별을 고한 날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이룬 인간승리의 기록물인 <127시간>은 2011년 제83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그리고 각색상 등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AF**

절대반지의 탐욕이 불러온 라그나로크,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무더운 이 여름, 한가로이 휴가를 떠날 수 없다면 환상적인 신화의 세계에 빠져 보는 건 어떨까. 영화 '토르'와 '반지의 제왕'을 낳은 거대하고 찬란한 북극 신화, 험난한 스칸디나비아를 떠돌며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었던 바이킹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북극 신화. 그 신비로운 신화 이야기로 떠나보자.

거대한 신화의 문을 여는 시작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무한한 탐욕이었다. 무수한 전설을 지닌 라인강에는 황금을 지키는 세 처녀가 있었다. 찬란한 황금을 지키는 처녀 앞에 나타난 욕심 많은 난쟁이 '알베리히'. 그는 라인강 처녀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함정에 라인의 황금을 빼앗아 달아나고, 바로 그순간부터 모든 세계가 동요하기 시작한다. 신들이 살아가는 아스가르드, 거인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난쟁이의 세계 모두 이 절대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탐욕으로 온 세상이 혼돈으로 뒤덮여 버린다.

하지만 무분별한 탐욕의 뒤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알베리히가 빼앗아 간 황금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사랑을 포기하는 자만이 이 라인의 황금으로

반지를 만들 수 있고,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저주가 내려진 것이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처럼, 선량한 사람도 바꿔 버리는 이 반지는 무한한 권력을 지닌 절대 반지였던 것이다. 알베리히가 황금을 빼앗은 뒤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자, 결국 신들의 제왕 '보탄'이 나서게 된다. 하지만 보탄 역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난쟁이

에게서 반지를 빼앗고, 반지를 빼앗긴 난쟁이는 보탄을 원망하면서, "이 반지가 다시 나의 소유가 될 때까지 이 반지를 소유하는 모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외친다. 이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지닌 황금의 반지는 저주의 반지가 되고, 거인 '파프너'의 손에 들어가고 만다.

새로운 무대의 배경은 물푸레나무 밑동에 꽃혀진 칼이 있는 마당.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훈딩의 집에 찾아온 한 전사는 훈딩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훈딩에게 납치당해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전사를 만나 재회의 감격을 나누고, 전사는 이전까지 그 누구도 뽑지 못했던 칼을 뽑아든다. 사실 어린 시절 헤어졌던 이 남매는, 절대반지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려는 신들의 제왕 보탄이 낳은 자식이었다. 하지만 아내를 빼앗겨 화가 난 훈딩은 이들의 뒤를 쫓고, 결국 전사는 훈딩의 칼에 맞고 숨지게 된다. 이때 나타난 '브륄힐데'. 보탄이 가장 신임하는 딸 브륄힐데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읽고 이들을 찾아와 뱃속에 전사의

아이를 품은 여인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킨다. 브륄힐데는 아이를 낳으면 '지크프리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고, 그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죄값으로 불의 장벽에 갇혀 영원의 잠에 들게 된다.

이제 지상에서 펼쳐지는 지크프리트의 이야기. 어렵게 목숨을 지킨 지크프리트는 라인의 황금을 훔쳤던 난쟁이 동생의 손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능률한 청년으로 자라난다. 그는 말하자면 신들의 제왕인 '보탄'의 손자였던 것이다. 용맹한 지크프리트는 동굴 속 용으로 변신해 반지와 보물을 지키고 있던 거인 '파프너'를 찾아가 반지를 되찾고, 불의 장벽에 갇혀있던 '브륄힐데'를 구한다. 지크프리트는 자신을 구한 죄로 영원의 잠에 빠진 브륄힐데를 깨운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브륄힐데는 감격해 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방패가 그대를 지켰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를 사랑했었어요, 지크프리트!"

하지만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순간도 잠시, 브륄힐데에게 반지를 준 지크프리트는 길을 떠나야만 했다. 영웅 지크프리트에게는 아직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브륄힐데와 지크프리트가 나눈 이별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절대반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난쟁이 알베리히가 아들 '하겐'과 함께 계락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하겐은 지크프리트가 찾아간 영토를 다스리던 군주 '군터'와 그의 여동생 '구트루네'가 미혼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군터는 브륄힐데와, 그리고 지크프리트는 구트루네와 짝을 맺어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지크프리트에게 마법의 약을 마시게 하고 기억을 지워버린 하겐은 지크프리트가 구트루네와 결혼하도록 하고, 지크프리트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브륄힐데를 데려오게 된다.

한편 사랑하는 연인 지크프리트를 만난 브륄힐데는 반가운 마음에 연인을 맞이하지만, 지크프리트가 구트루네와 약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망각의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브륄힐데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군터와 함께 지크프리트를 해치려는 복수를 맹세한다. 그 다음날, 잔혹한 군터는 지크프리트에게 기억력을 회복하는 약을 권하고, 결국 기억을 되찾은 지크프리트는 자신이 브륄힐데와 사랑했다는 것을 가까스로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지크프리트가 브륄힐데를 기억해낸 순간 군터의 창에 찔려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브륄힐데... 한없는 슬픔에 잠긴 브륄힐데는 라인강변에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린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지크프리트를 화장하기 위해서였다. 브륄힐데는 장작을 태우기에 앞서 신들에게 반지를 태워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를 화장한 장작불이 신의 세계에 까지 올라가 결국 신들의 세계도 종말을 맞을 것이라 외친다.

결국 정의로웠던 브륄힐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쌓아올린 장작에 불을 던진 브륄힐데는 그 자신도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타고르는 불길은 신들이 사는 세계에도까지 치솟아 올라, 모든 세상이 불꽃에 휩싸인다. 이것이 바로 신들의 종말, 라그나로크... 무한한 탐욕에 사로잡혀 신들 또한 종말에 이르는 '신들의 황혼'... 모든 작품을 연주하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이 '니벨룽의 반지'는 결국 헛된 탐욕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허무한 진실이 낳은 무한한 신화의 세계다. **AF**



작품속을 거닐다 광화문연 가

〈Behind the Canvas〉에 이어 이번 달 새롭게 시작하는 칼럼인 〈Art in Everyday〉는 일상 속 소소함 안에도 예술은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심하게 일상을 그려내는 KBS Classic FM '당신의 밤과 음악'의 박나경 작가가 펜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녀가 들려드릴 〈Art in Everyday〉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을 거닐며 볼 수 있는 흔한, 그러나 흔하지 않은 예술작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머링 맨(Hammering Man), 조나단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

광화문에 가면, 광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서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광화문'을 넣어서 '시장에 가면' 놀이를 해보면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시설과 기관들이 모여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한복판에 있는 역사,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란 설명이 무색하지 않다. 그런 만큼 광화문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굳이 어느 미술관을 찾아들지 않아도 세계적인 대가들의 작품을 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올해로 서울살이 10년차를 맞고 있는 망치질하는 사람, '해머링 맨(Hammering Man)'이다. 2002년 역사박물관의 길 건너 맞은편에 들어선 '해머링 맨'은 22m의 키에 50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자인간.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단순한 실루엣의 이 남자는 매일 아침 7시를 넘긴 시간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허공에 망치질을 한다. 이 작품은 미국 출신의 작가 조나단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가 1979년 뉴욕의 폴라 쿠퍼 갤러리(Paula Cooper Gallery)에서 '일하는 사람(Worker)'이란 제목으로 처음 선보인 이래 독일과 스위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됐고,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아쉬워하는 조나단 보롭스키는 자신이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느끼는 노동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해머링 맨'을 통해 표현했으며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담았다. 끊임없이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해머링 맨'의 행위는 노동하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운명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해머링 맨'이 늘 정경에 여겨지는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조나단 보롭스키의 따스한 추억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들던 거인 이야기에서 이 작품의 영감을 얻었는데, 그 기억 속의 거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거인이었다고.' 그래서일까. 길을 가다 가끔 고개를 들어 그 단순한 동작을 묵묵히 반복하는 '해머링 맨'을 올려다보면 그 착한 거인의 이미지가 겹쳐져서 왠지 모를 위로가 느껴진다.

"나는 인간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이다. 매일매일 배운다. 내가 아는 한 인간의 삶은 무척 단순하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걸 매우 복잡하게 설명한다. 당연히 사람들도 삶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작업을 통해 단순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조나단 보롭스키. 그의 작품은 삼청동 입구의 국제 갤러리 지붕 위에서도- '걷는 여자(Walking Woman)', 강서구청 사거리의 복잡한 건물들 사이에서도-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Walking to the Sky)',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입구 옆의 잔디밭에서도- '노래하는 사람(Singing Man)' -

만날 수 있다.

다시 광화문으로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청계광장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청계광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눈에 들어오는 일명 '다슬기'. 이 작품은 스웨덴 출신의 미국 작가 클레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스프링(Spring)'이다. 이 작품 역시 크기로 치면 '해머링 맨'과 거의 맞먹는 정도. 높이 20m에 총 중량이 9톤에 이르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파배기 모양의 구조물이다. 밤에는 터널처럼 뚫린 아래쪽 공간에 조명이 들어와서 바로 앞의 연못에 보름달이 뜬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 작가에 따르면 작품에 사용된 파랑, 빨강, 노랑의 3가지 색은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와의 조화를 의미하며, 수직으로 솟은 모양에는 물이 샘솟는 모습과 서울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램을 담았다고 한다.

사실 이 작품은 2006년 이 자리에 들어서기 전부터 작품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시작부터 미술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한몸에 받는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클레스 올덴버그는 이미 빨래집게, 립스틱, 일회용 손가락, 담배 꽂초, 햄버거 같은 일상의 사물들을 수백 배, 수천 배씩 확대해 설치하는 엉뚱한 작업들로 사람들의 비판에 익숙하다. 그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작고 사소한 물건들을 소재로 삼게 된 건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일상용품에서 그 어떤 예술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고 사소한 물건들을 커다랗게 만들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게 됐다.

"사물은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단 우리가 사물을 변형시킬 꿈과 의지와 용기만 가졌다면 말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작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클레스 올덴버그.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름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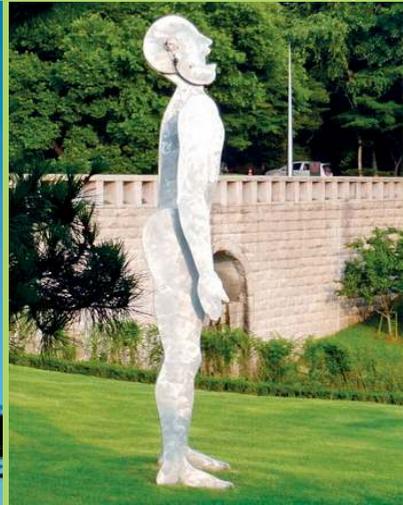
광화문에는 이 두 작품 말고도 발길 닿는 곳, 시선이 닿는 곳곳에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숨겨져 있다.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나가는 것도 거리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재미가 될 터. 자, 그럼 이제 처음 시작할 때처럼 광화문에서 발견한 미술작품의 이름을 넣어 '시장에 가면' 놀이를 다시 한 번 해볼까. 광화문에 가면 망치 맨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도 있고, ○○○도 있고... 그 빈자리에 당신이 발견한 미술작품의 이름을 넣어보는 것, 그것은 보롭스키가 우리 몸을 움직여 얻는 기쁨을 그려내듯, 올덴버그가 일상용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듯, 우리의 삶이 곧 예술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AF**

걷는 여자(Walking Woman)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Walking to the Sky)

노래하는 사람(Singing Man)

다슬기





결과보다는 과정의 치열함을

만약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면 하늘에 한 가지 소원을 빌고 싶다. 김연아 닮은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외모나 피겨 스케이팅 실력을 갖게 해달라는 건 아니다. 김연아에 대해 가장 놀라운 건, “담대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다. 지난해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김연아의 라이벌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 바로 앞 순서에서 자신의 경력 중 가장 뛰어난 수준의 경기를 선보였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김연아는 곧바로 올림픽 사상 최고로 손꼽힐만한 연기로 역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무대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셈이다. 그리고 1년 후, 김연아는 다시 한 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빙판 위가 아니라 올림픽위원회 위원들 앞에서이긴 했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올림픽 위원회에서 김연아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김연아는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자신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바로 지난해 잊을 수 없는 경기의 주인공이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위원들은 큰 인상을 받았고, 김연아의 프리젠테이션은 평창 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터넷 여기저기에서는 김연아의 프리젠테이션 영상이 돌아다니고, 김연아가 당시 입은 옷은 순식간에 유행 상품이 됐다. 이제 20대에 접어든 여성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하는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마친 셈이다. 그러나 김연아의 마음가짐이 가장 부러울 수밖에. 김연아가 출연하는 SBS <일요일이 좋다>의 '키스 앤 크라이'를 보면 김연아에 대한 놀라움은 더욱 커진다. 연예인들이 남녀 짝을 이뤄 아이스 댄싱에 도전하는 '키스 앤 크라이'에서 김연아는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김연아는 출연자들의 멘토이자 심사 위원이다. 하지만 출연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김연아가 경기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을 것인지 능히 짐작된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규혁도 피겨 스케이팅의 기술을 쓸 때는 여전히 어설피고,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날아갈 듯 춤을 추는 손담비도 계속 실수를 한다. '달인' 김병만은 연습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만큼 피겨 스케이팅은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운동의 성과가 그대로 반영된다. 아이유는 뛰어나지 못한 운동신경에 바쁜 스케줄로 인한 연습 부족으로 부실한 무대를 선보이자 금세 비난의 대상이 됐다. 출연자 중 재능만으로는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도 바쁜 스케줄로 인해 연습이 부족해지자 성적이 금세 하위권으로 떨어진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대로 경기를 망칠 수 있고, 그만큼 철저한 연습과 중요하다. '키스 앤 크라이'의 출연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하게 피겨 스케이팅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손담비는 자신의 피겨 스케이팅이 대중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라이벌격인 크리스탈이 화제가 되자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연습한다. '키스 앤 크라이' 시작 당시에는 밝게 웃으며 딸에게 자신이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텔런트 이아현도 피겨 스케이팅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아현은 갈비뼈가 부상당하는 상황에서마저 연습을 강행한다. 딸과, 시청자들과 한 약속은 물릴 수 없고, 피겨 스케이팅은 조금이라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실력이 떨어진다.

'키스 앤 크라이'가 김연아의 아이스 쇼 같은 세계 정상급 공연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고정 시청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은 누군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지 생생한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과정 끝에 그들이 이뤄내는 성취감은 어떤 프로 선수들의 무대 못지않다. 김연아가 발목 통증을 참아내고

무대를 마친 김병만에게 "최고의 무대"였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김연아는 이 모든 과정을 세계 정상급의 수준에서 겪으며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가 운동경기에서 승자를 주목하는 건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선수의 노력과 고통의 시간은 좀처럼 평가받지 못한다. 평범한 대중들은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스 앤 크라이' 같은 스포츠 리얼리티 쇼는 우리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의 치열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그리 뛰어나지 못한 아마추어들의 무대에도 엄청난 노력과 진심어린 도전이 뒤따른다.

최근 '키스 앤 크라이'에서는 아이유와 서지석이 첫 탈락자가 됐다. 하지만 그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 본 관객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많은 리얼리티 쇼는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경쟁 속에서 과정의 치열함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운동, 또는 음악, 또는 김연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김연아를 비롯한 스포츠 스타가 보여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은 길에도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김연아가 유치에 나선던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쯤이면, 우리 모두 1등뿐만 아니라 그 모든 노력한 선수들의 과정에 환호를 보낼 수 있기를. **AF**

123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 스릴러 뮤지컬

〈잭더리퍼〉

뮤지컬 〈잭더리퍼〉는 1888년 실제 살인 사건을 무대 위로 올렸다. 의사 ‘다니엘’이 시체 브로커인 매춘부 ‘글로리아’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화재로 만신창이가 된 글로리아에게 필요한 장기를 구하기 위해 살인마와 거래를 하면서 인간의 솔직한 내면을 만날 수 있다.

배우들의 호흡도 잘 맞는다. 주인공 ‘다니엘’은 안재욱, 엄기준, 이지훈이, 살인마 ‘잭’에는 신성우가 열연한다. 수사관 ‘앤더슨’은 유준상과 민영기가, 특종기자 ‘먼로’는 이정열과 김법래가 캐스팅되었다. 특히 안재욱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흡인력과 마치 조니뎀을 연상케 하는 신성우의 능청스러움은 뮤지컬의 진가를 더한다.

세트와 사운드도 최대한 활용했다. 배우들은 회전세트를 이용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공간을 바꿔나간다. 극중에 들리는 종소리와 벨레소리도 객석을 들썩일 정도로 생생하다.

뮤지컬 〈잭더리퍼〉는 영국을 무대로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체코 뮤지컬이다. 극전개가 단순하기보다, 마치 체코 소설처럼 섬세한 대사와 감성들이 울려 여음 ‘맘마미아’ 등 뮤지컬 대작들과 싸워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 기간 : 8월 14일까지
-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 홈페이지 : www.jacktheripper.co.kr
- 가격 : VIP 12만 / R 10만 / S 8만 / A 6만 / B 4만



우리가 사랑한 늑대들, 뮤지컬

〈늑대의 유혹〉

서울에서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전학 온 시골 소녀 한경. 어리버리 그녀의 서울 생활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의 연속이다. 게다가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두 명의 킹카와 묘한 인연이 이어진다. 반해원과 정태성이다. 학교 여학생들을 구름떼처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싸움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여기까지가 소설 ‘늑대의 유혹’의 내용이다.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늑대의 유혹〉은 한 마디로 학원물과 K-POP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관계에 S.E.S, g.o.d 등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노래부터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등 K-POP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들로 가득 채웠다. 더욱이 〈나는 가수다〉의 장소영 자문위원이 음악감독을 맡아 이미 익숙한 곡들이 어떻게 편곡될 지도 기대된다.

뮤지컬 〈늑대의 유혹〉 제작자이기도 한 탤런트 송승환이 “애초에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류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했다. 슈퍼주니어의 려욱,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 가창력에서 빠지지 않는 임정희가 참여하는 뮤지컬 〈늑대의 유혹〉. 7년 전 전국을 강타한 영화가 한류 히트송 주크박스로 다시 태어났다.

- 기간 : 10월 30일까지
- 장소 : 서울 코엑스아트홀
- 홈페이지 : www.i-pmc.co.kr
- 가격 : R 7만 / S 5만 / A 3만



Opinion

제주도 알뜨르비행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다

* 창공 글터

혹서기,
열로부터 건강관리

* Health Diary

하버드 글쓰기 강의

* 책마을

제주도 알뜨르비행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다

눈이 시리도록 목초지 같은 넓고 푸르른 들판에 동그스름한 격납고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에는 제주도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알뜨르비행장이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최영훈 대령의 인솔로 공군애호단체 회원들은 알뜨르 비행장의 한 가운데에 섰다.

“여러분, 이곳이 모슬포 아래쪽에 있는 들판, 즉 돌이라고 하여 ‘알뜨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의 비행장으로, 일본은 1926년부터 약 10년간 이곳에 비행장을 건설해 중일전쟁 등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됩니다. …… 현재 이 땅의 소유는 국방부이지만, 공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쪽 북동쪽으로 바라보이는 산이 산방산입니다. 푸른 하늘과 구름이 어우러지는 날이면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308관제대대장 한만희 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어느새 일제 강점기 때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친일하여 광명 찾자’고 외칠 그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를 마치고 영림서 산림순시원의 보조로 따라다니다가 노무자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곳은 가고 시마의 탄광이었다. 첫날 합숙소에 들어갔는데 벽 틈에서 나온 빈대가 득실거리고 이불에도 보리쌀만한 이가 있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다. 그래서 새하얗게 밤을 새우고 배치된 곳은 탄광의 막장에서 탄을 캐는 일이었다.

먼저 노무자로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소름이 돋는 무서운 얘기를 해주었다. 그 얘기는 “칸토오[關東]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수십만 명이고 불에 타거나 무너진 집도 수십만을 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조선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음식물에 독을 넣고 폭동을 일으켜 그렇게 되었다고 일본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선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으니 몸조심해야 된다.”고 일러주어 일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어야

했다. 실제로 유언비어에 놀아난 일본 자경단(自警團)은 육천 명이 넘는 조선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일본말을 제대로 몰라 일본인 심장이 뭐라고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 기절할 때까지 언어맞기도 하니, 그때엔 일본말로 슬프게 우는 소리 ‘아이고[哀號]’를 해야 덜 언어맞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 때 아버지는 열여덟이었다. 어린 나이로 길게는 하루 열네 시간의 채탄 작업은 생명을 죽음과 맞바꿀 만큼 위험했다. 갱도 안 막장은 겨우 허리를 굽힐 수 있는 높이에서 앉아 곡괭이로 탄을 찍어내고 삽으로 밑차에 담아 실어내는 일을 하다보면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허기증이 나 비틀거려야만 했다. 소금기 빠진 몸에서는 짝조름한 단무지 한입거리라도 요구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이 노래졌다. 한 달이면 한두 번 실까, 줄곧 땅두더쥐처럼 채탄에 매달려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나날이었다.

그렇게 일년쯤 지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도라지꼬쟁이가 되었다. 도라지꼬쟁이라는 말은 강릉 지방의 사투리로 바짝 마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쇠약해진 아버지는 급기야 앓아누웠다. 그것도 조선 땅이 아닌 이역만리 일본 땅에서 모두 일하러 가고 없는 합숙소에서 돌보는 사람 없이 끄떡 않는다는 건 비참했다. 일본인 심장은 강도 높은 장시간의 노동과 혹사로 인해 자리에 누운 사람을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할 뿐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본 동료가 약을 구해주어 다행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하지만 죽어도 되돌아보기 싫은 막장을 다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막장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부모형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텼다.

어느 날 갱도가 무너져 여러 사람이 죽었다. 그 중에는 하늘도 무심하게 아버지가 앓아누웠을 때 약을 구해준 동료가 참변을 당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하루 채탄 작업을 멈추고 탄광의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다. 모두 민족의 울분이 북받쳐 “울밑에 선 병송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피 적에/어여쁜 아가씨들 너를 반겼도다.”를 부르며 하산하다 일본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양측이 다치는 불상사가 났고 경찰에서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담은 <봉선화>를 불렀다고 몇 사람을 붙잡아 갔다. 그들은 며칠 후 파죽음의 된 몸으로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의 '불령선인(不逞鮮人)' 이 되어 돌아왔다.

그 때 아버지는 붙잡혀 가지 않았지만, 그때만큼 민족의 비애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늘 우리 자식들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살아 생전 TV를 보다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뉴스가 어쩌다 나오면 '똥은 말라도 구린내가 난다고, 독도를 자기 나라라고 우기는 싸가지 없는 놈들은 목을 바짝 비틀어야 한다.' 고 치솟는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즐시 <대진해수욕장에서>라는 시를 보시고 상기된 얼굴로 "이게 시라는 거냐? 시는 좀스럽게 쓰는 게 아니여. 넋두리 같구먼!"이라고

하며 악몽 같았던 가고시마의 탄광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8·15 해방을 맞이했지만, 즉시 귀국하지 못했다. 귀국선을 얻어 타지 못해 일년 간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뿐 6·25 전쟁이 일어나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리고 다시 수복하는 등 밀고 밀리는 전쟁은 많은 젊은이들이 나서야 했다. 아버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모슬포 육군훈련소'에 입대했다. 훈련 중에 풍랑이 일어 육지에서 보급선이 오지 않으면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목이 마를 때는 소나 말이 지나간 발자국에 고인물이라도 고맙게 감지덕지 마셨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알뜨르비행장을 뒤로 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제주도의 아픔은 제주도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민족의 아픔이고, 곧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걸 깨달았다. **AF**

강원도 동해안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라는 곳에
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대진해수욕장에 갔어.

바다 끝 수평선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
똑바로 헤엄쳐 갈라치면
삼십육 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를
만주 땅에 유랑하게 하고
아버지를 가고시마의 탄광으로 끌고 가
나라 없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지금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왜놈들이 있지.

곶장 해안을 따라 북으로 가면
민통선 안 최북단 마을 명파리라는 곳이 나오면
더 이상 갈 수 없지.
똑같은 할아버지 자손들이 싸우다
휴전선을 그어 동강난 허리에는
지방 빨갱이 인민위원장이 동족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반동으로 몰아 모듬매로 피 토하고
죽게 한 삼촌의 서리고 서린 한이 있지.

분단 조국의 아픔을 모르는 철부지 밥벌레들
자맥질로 기름기 빼고 있었어.
동해안 최북단 대진해수욕장에는
즐시, <대진해수욕장에서>

혹서기, 열로부터 건강관리

STAY HEALTHY

한여름 비행 시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활주로는 낮아진 공기밀도로 인해 항공기 상승을 더디게 합니다. 항공기도 지치게 만드는 혹서기, 이럴 때일수록 공군장병들은 더위로부터의 건강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난화현상으로 최고(最高)의 혹서기를 매년 경험하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는 신체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여름의 대명사인 뜨거운 태양, 열로부터의 건강관리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인간은 자율신경계 조절작용에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 더위에 적응할 때까지는 신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여름철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질병에 대한 원인과 증상, 응급조치를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만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실신

열실신은 고열에 노출될 때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않아 현기증이 나고 급성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거나 실신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고온 환경에서 일할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한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증상은 자세를 갑자기 바꾸거나, 오래 서 있을 때나, 무리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이때는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혀야 하며, 수분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료진을 불러야 합니다.

열경련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운동을 한 경우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경련은 30초 정도 일어나나 심할 때에는 2~3분 동안 지속하기도 합니다. 이의 경우에는 0.1% 식염수(물 1리터에 소금 한 스푼정도)를 마시게 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을 마사지해 주어야 합니다.



열피로

열피로는 고온에서 장시간 힘든 일을 하거나, 심한 운동으로 땀을 다량 흘렸을 때 발생합니다. 주 증상은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두통, 변비 또는 설사가 비교적 흔히 나타나며 실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를 서늘한 장소에 옮겨 열을 식힌 후 0.1% 식염수를 공급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 소위 이온음료를 마셔도 좋습니다.

열사병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체온조절 장애이며,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주 증상은 중추 신경장애이며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 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지체 없이 입원시켜야 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히고,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등 응급처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광화상

여름철 자외선에 의한 대표적 증상이 일광화상입니다. 피부가 빨개지고 따갑거나 화끈거립니다. 색소 침착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물집까지 생기고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바닷가나 야외로 나가기 전에는 자외선을 모두 차단하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지수는 적어도 30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쯤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되는 부위에 꼼꼼하게 펴 바르고, 중간에 땀이 많이 흐르거나 물에 닿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일광화상이 발생하면 냉찜질을 하거나 피부를 서늘하게 하고 심한 경우, 피부과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기미, 주근깨의 색소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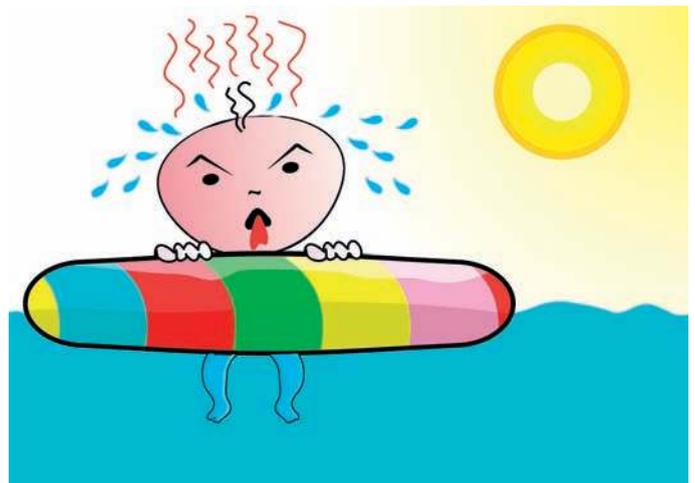
기미는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 진해지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데, 기미 부위는 정상 피부에 비해 더 많은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자외선 노출이 누적되어 진해진 기미는 쉽게 흐려지지 않고 치료 기간도 깁니다. 따라서 기미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창이나 집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투과되므로 조심하거나 이를 막아주는 스크린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 시 모자나 양산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근깨 역시 멜라닌 색소에 의한 것으로 여름에 색깔이 짙어지고, 겨울에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없어진 색소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다시 짙어지므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땀띠

땀이 표피로 분비되는 도중, 한관(汗管)이나 한관구의 어느 부위가 폐쇄되어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땀띠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작은 수포나 붉은 구진 등이 거드랑이, 머리, 목, 상부 체간에 호발(好發)됩니다. 환자를 시원한 환경에 두고 땀에 의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즉시 씻어주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병과 사고가 빈번한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유지를 위해 공공장병들이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찬물로 목욕을 하면 시원한 감각을 느끼면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이면서도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이 정신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에어컨 혹은 선풍기 바람의 노출시간을 줄이고, 실내의 온도 차이를 섭씨 5~8도 내외로 유지하며, 한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F**



음자가 두 사람이 뉴욕의 웨스트사이드 거리를 걷고 있다. 이때 문장이 적은 문장이 이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묻는다.

“원래지만 커넥티컬로 가는 길을 아시는지요?”

두 음악가는 서로 바라보며 씩 웃더니 노부인쪽으로 돌아서며 말한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 버버라 베이그의 「하버드 클로저 강의」중에서(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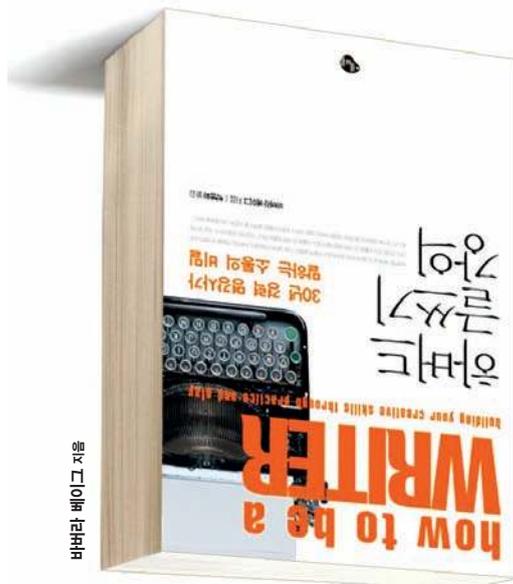
음연의 노부인에게 커넥티컬로 가는 길이나 도로, 이정표를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했던 두 음악가의 대답에 제 머리는 문득한 해머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다. 물론 이 영화는 클로저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 영화 하나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 전체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클로저란 아주 짧은 구절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로저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렵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머무는 데 갖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을 담담한 힘으로 표현했지요.

오직 소개해드리는 「하버드 클로저 강의」라는 책을 통해 우리 「책마음」 가족들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F

2000년대 초·중반에 사이클드 미니멀피파가 크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조종이 트윈터, 페이스북, 마이페이스, 링크드인, 비보, H15, XIN9 등을 섞어 뉴미디어 융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생겨나서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원상복구를 원하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어버려 버려버렸지만 당시에만 해도 이른바 파도를 타며 1층의 미니멀피파를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의 모습을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었지만, 여전히 클로저를 쓰는데 어려움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미니멀피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수줍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책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점에서 우리 「책마음」 가족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하버드 클로저 강의」는, 클로저를 쓰지 않거나 수줍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책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다음 영화에 즐겨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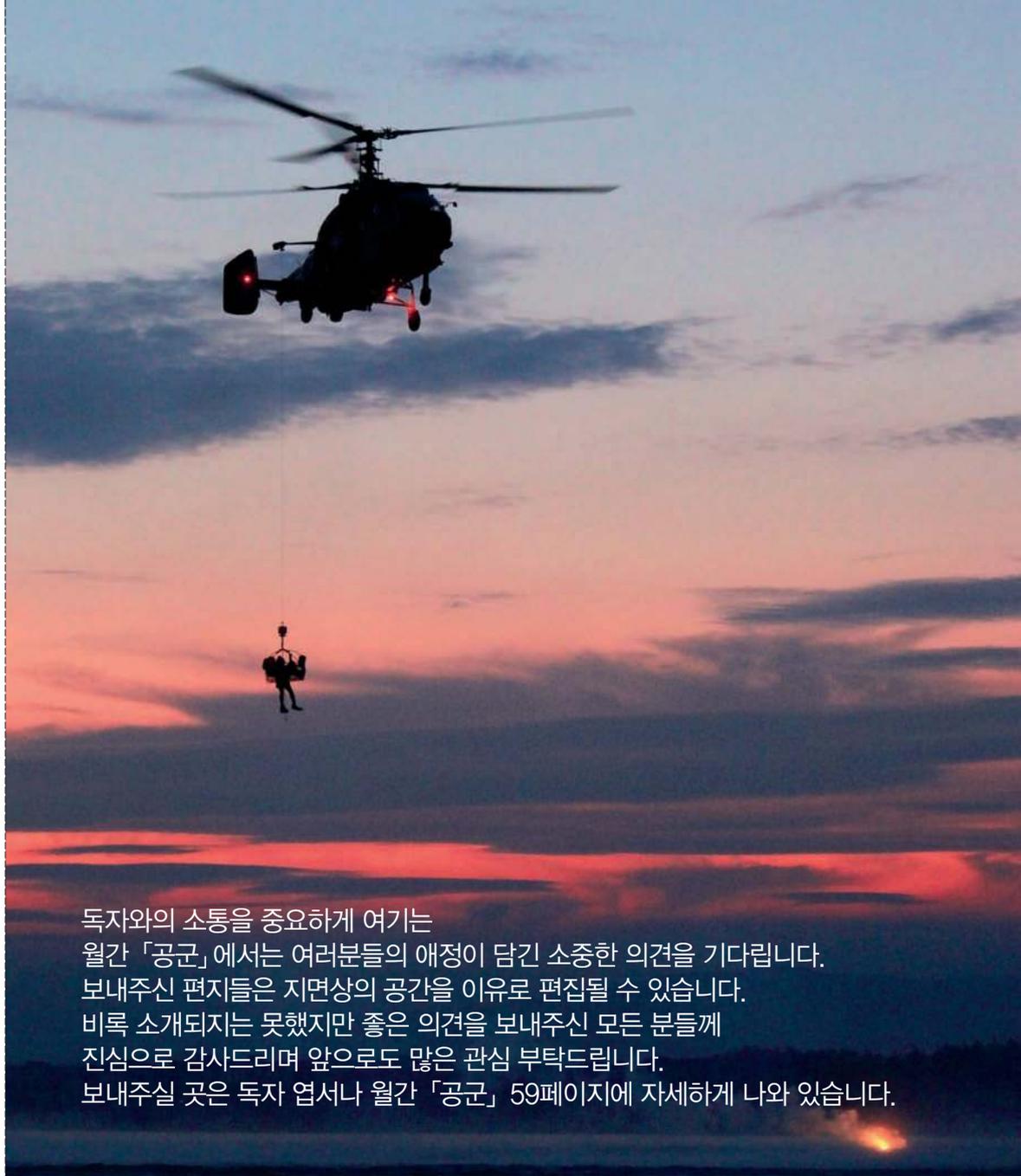
2011 August

no.398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1 August

no.398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8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8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8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8월 31일까지

1. 1943년 초부터 영국이 독일에 대한 본격적인 야간폭격을 감행한 작전으로, 정밀폭격의 기원이라 불리는 이 작전명은 무엇인가?
2.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로서, 절대반지의 탐욕이 불러온 라그나로크를 그린 오페라는 무엇인가?
3. 땀이 표피로 분비되는 도중, 한관(汗管) 또는 한관구의 어느 부위가 폐쇄되어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은?

6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두리틀 공습작전 2. 루살카 3. 요로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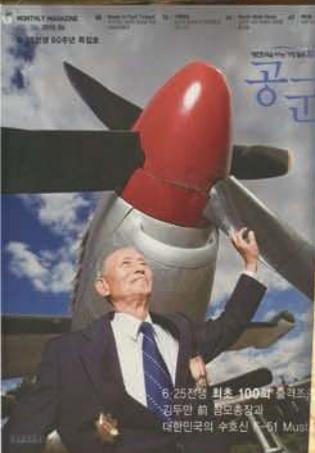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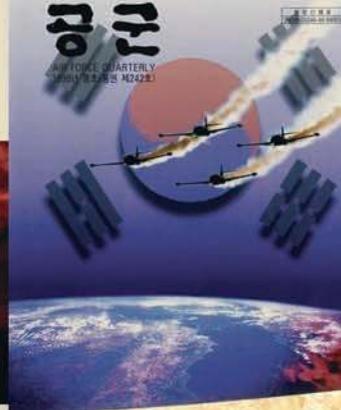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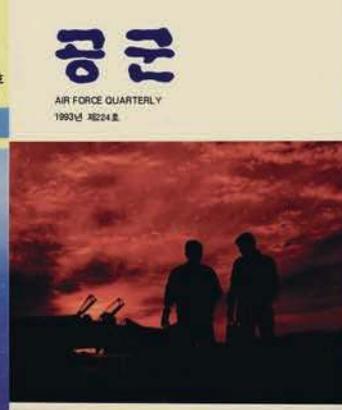
퀴즈 당첨자 전북 익산시 이지원 ● 서울 관악구 최호성 ● 대구 남구 송명수
서울 동작구 손민철 ● 충북 충주시 김미정 ● 경기 동두천 정사무엘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WANTED



월간「공군」결손호를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는 월간「공군」의 책장을 독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아래 결손호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호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공군」담당

- 결손호: 코메트(공군지 전신) 52~72호,
- 공군지 99~102호, 157~158호, 160~170호,
- 173~177호 183~187호, 220호, 240호.

